

碩士學位論文

열린學習 展開를 위한 教室의 OPEN化와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

— 濟州地域 初等學校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金 泰 一



71.653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建設環境工學科

梁 相 哲

1 9 9 9

열린學習 展開를 위한 教室의 OPEN化와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

— 濟州地域 初等學校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金 泰 一

이 論文을 工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 年 月 日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建設環境工學科
建築工學專攻

梁 相 哲

梁相哲의 工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9 年 月 日

委員長

委 員

委 員

目 次

目 次	i
Summary	iii
圖目次	iv
表目次	vi
I. 序 論	1
1. 研究의 背景 및 目的	1
2. 研究의 方法	2
3. 論文의 構成 및 內容	5
II. 열린교육의 國內外 動向分析	7
1. 열린교육의 理論과 背景	7
2. 열린교육의 特徵	9
3. 열린 學習과 열린 學習空間	10
4. 外國의 열린교육 動向	15
5. 우리나라의 열린교육과 열린학교	22
III. 열린 學習空間의 形成手法	27
1. 學習空間 오픈화의 意義	27
2. 오픈스페이스의 패턴	28
3. 오픈스페이스의 活用段階	30
4. 열린 學習空間의 內部構成 및 特徵	32
IV. 濟州地域 열린교육 施設의 展開現況과 오픈화 手法	39
1. 濟州地域 初等學校 概況	39
2. 濟州地域 初等學校 열린교실의 展開現況	40
3. 열린교실의 오픈화 手法	44
4. 열린교실의 展開 現況	45
5. 學習空間의 變化에 대한 實査	48
6. 濟州地域 열린교실의 形態別 空間 分析	52
V. 教室의 오픈화와 열린 學習空間에 대한 評價	58
1. 調査對象의 特徵	58
2. 열린 教育環境에 대한 教師의 意識構造	60
3. 열린 學習空間의 活用に 대한 評價	68
4. 열린 學習空間의 物理的 環境에 대한 評價	80

VI. 結 論	85
參考文獻	88
國文抄錄	93
附 錄	95




A Study on Space Components and Opening of Classes
for Developing Open School

- With Elementary Schools in Cheju in the Center -

Yang, Sang-Chul

*Department of Constructio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Industry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Tae-II*

Summary



Recently, there has been a trend to induce a new educational system of open school as an alternative to break from the traditional education. In spite of a short domestic history, the new system, which is the open school, widely spreaded to most of elementary schools in Cheju. Such system in Cheju was a global model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However, there was a problem in the aspect of space application for open school, and it has a difficulty in properly confronting the developed education in the future. Accordingly, in this study, based on the elementary schools executing the open school in Cheju, we investigated the opening types of class space, and the problems and improving methods on space components for the proper application of class space. Also, from this study we presented the new type of class space applicable to our open school in the futu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design drawings of the elementary schools executing the open school in Cheju and compared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space applicability through site examination, which includes teachers' understanding on open school, the location and magnitude of school, and the number of students etc. And by analyzing the phenomena from class applicability, we investigated the problems of open school space.

In the premature stage on open school, we investigated that the recognition of teachers on open school has influence on the open space components. Finally, based on the problems on class applicability of opened corridor and space components of unit class, class activity in wider space, and on the spacial necessity on another type of class activity, we presented the design method for space components of open class in our elementary schools.

圖 目 次

도 I -1-1	분석 방법 흐름도	6
도 II -4-1	초기 Eveline Lowe primary School의 학습공간 개념도	17
도 II -4-2	영국의 열린학교 평면도	18
도 II -4-3	미국의 열린학교 평면도	19
도 II -4-4	일본의 열린학교 평면도	21
도 II -5-1	상명초등학교 교실 평면도	26
도 III -2-1	학습센터형(Learning Center Model)	28
도 III -2-2	작업공간형(Work Space Model)	29
도 III -2-3	특별교실형	29
도 III -3-1	제1단계(교실을 확대 사용)	30
도 III -3-2	제2단계(복수학급이 협력해서 사용)	31
도 III -3-3	제3단계(open space를 활용의 중심장소로 사용)	31
도 III -4-1	학급단위교실 공간구성도	33
도 III -4-2	코너 배치도 사례	36
도 IV -2-1	제주지역 열린학교 평면도	42
도 IV -4-1	제주지역의 열린교실 유형	47
도 IV -5-1	현장조사 (사진)	48
도 V -1-1	교사의 성별	58
도 V -1-2	교사의 연령 분포	59
도 V -1-3	교사의 교직 경력	59
도 V -1-4	열린교육 운영경력	60
도 V -2-1	열린교육 활성화에 대한 교사의 전망	61
도 V -2-2	교사경력별 열린교육 활성화에 대한 전망	61
도 V -2-3	열린교육의 운영경력별 열린교육 활성화에 대한 전망	62
도 V -2-4	교실유형별 학급당학생수에 비한 교실공간의 크기에 대한 인식	63
도 V -2-5	교실유형별 열린 복도공간에 대한 인식	64
도 V -2-6	교실유형별 열린 복도의 학습활용도	65
도 V -2-7	기존교실의 열린공간 구성에 대한 필요도	66

도 V-2-8	열린교육 전망에 비관적인 교사들이 열린 복도를 수업에 활용하는 정도	66
도 V-2-9	열린교육 추진상 개선할 사항	67
도 V-3-1	개방복도의 활용도	68
도 V-3-2	교실유형별 열린 복도공간의 활용 목적	69
도 V-3-3	열린 복도공간의 활용도	70
도 V-3-4	소음발생 학습의 장소	72
도 V-3-5	다목적공간의 필요도	72
도 V-3-6	물싱크의 활용	73
도 V-3-7	수업에서 선호되는 학습집단의 형태	74
도 V-3-8	고정학습코너의 필요성	75
도 V-3-9	학습공간 재구성 빈도	76
도 V-3-10	학급당 모둠활동자리수	76
도 V-3-11	팀티칭 수업 경험	77
도 V-3-12	팀티칭 시도 횟수	77
도 V-3-13	팀티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78
도 V-3-14	멀티미디어 자료의 수업 활용도	79
도 V-3-15	멀티미디어 코너의 배치 장소	80
도 V-4-1	교실 바닥 마감재 현황	81
도 V-4-2	교사의 교실바닥 마감재 선호도	81
도 V-4-3	카펫 바닥재의 실제 사용상 장점	82
도 V-4-4	바닥오손이 우려되는 학습활동 장소	83
도 V-4-5	카펫 바닥에서의 실내화 착용 여부	84

表 目 次

표Ⅱ-1-1	전통적 교육과 열린교육의 비교	8
표Ⅱ-3-1	열린교육의 기대효과	14
표Ⅲ-4-1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나타나는 코너의 종류	35
표Ⅲ-4-2	제주지역 학교의 학급규모별 코너수	37
표Ⅳ-1-1	제주지역 초등학교현황 전국대비 조건표	39
표Ⅳ-1-2	제주지역 초등학교 개황	40
표Ⅳ-2-1	제주지역 초등학교의 열린교실 현황	44
표Ⅳ-5-1	제주지역 열린교실의 오픈화 유형별 현황	5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 序 論

1. 研究의 背景 및 目的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교육적 체계와 내용 그리고 교수-학습방법 등이 우리사회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정비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교육 목표에 초점을 둔 오늘의 시대 상황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구시대적 환경을 탈피하여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의 현대화·과학화·인간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과밀한 '거대 학교의 2부제수업', 농어촌에서는 통폐합이 우려되는 '소규모학교의 복식수업' 등 우리나라교육의 산재된 제반 문제를 짚어지고 있다. 교육의 과정은 지나칠 정도로 강조된 지적위주의 획일화교육으로 보편화되면서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고, 교사(教師)중심의 수동적 집단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에 기대되는 교육의 형태는 독창성과 개성이 더욱 강조되고 미래 정보사회에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요구한다.

기본적으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무리 교과과정이 완벽하고 훌륭한 교사를 확보한다고 해도 물리적인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교육목표의 성취는 요원한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학교건축은 근대교육이 시작된 이래 일제(一齊)·획일식 수업방법에 대응한 표준 설계도에 의해 건축¹⁾되어, 장래의 다양한 교육 내용과 방법에 의한 학습을 전개하기에는 많은 공간적 한계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교육체계 안에서는 학생개개인의 개성·흥미·적성·능력 등을 신장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방법이

1) 우리나라의 학교 건물은 일제 강점기의 군국주의적 이념에 의거한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교육방식에 적합하도록 지어지고 획일적인 일자식 건물의 영향이 잔존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1967년의 "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의 틀 안에서 표준화되고 일자 박스형 편복도식 건물로 지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원되어야 하겠지만, 이는 이에 적합한 교육시설이 갖추어 졌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학교시설의 최우선 정책은 교육의 질을 우선하기보다는 외곽시설의 양적인 수요에 급급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육시설 정책은 이를 수행함에 있어, 경제성장으로 인해 상승된 국가위상에 비교해 볼 때, 교육시설의 발전에 관심이 무디어진 정책적 무감각과 담보적 자세, 그리고 고답적으로 체감해 온 재정적 사유로 인한 시설행정의 무력감 때문에, 아직껏 관행적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열린교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 운동이 우리나라 전역에 확산 전개되어, 초등학교에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아동중심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열린교육의 확산은 학교 안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구성에로의 여망을 고조시키고, 시기적으로도 열린 학습 공간구성을 위한 합리적 방향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정부의 'GNP 5% 교육재정 확보'로 교육개혁의 의지가 실천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1996년부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교육환경개선 5개년 사업'²⁾이 착수되었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와 무관하게 안주해온 한국 교육현장에서, 교육시설 개혁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결정적으로 뒷받침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러한 열린교육의 가시적 파급 효과는 제주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1994년 조천초등학교의 '열린교육 시범운영'을 시발로 하여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제 열린교육이라는 말은 교육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다. 2000년부터 점차적으로 시작되는 "제7차 교육과정"³⁾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창의성·자율

2) 낙후된 학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교육의 수요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0개 세부사업(교원편의 시설확충 및 증축, 대수선, 난방시설개선, 화장실개선, 정화조개선, 급수 시설개선, 승압시설개선, 학교 외부환경개선, 책.결상교체 및 사물함 확충)으로 나뉘어 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매년 1조원씩 5년간에 5조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환경 특별회계에서 3조 5,000억원, 지방교육회계 자체부담금 1조 5,00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재원의 충족성을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조원은 총소요예산11조 7,235억원의 42.6%에 해당하여 소요액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투자규모와 과거 수십년간 교육재정규모를 생각할 때 5조원의 투자는 상당한 규모라 할 수 있다.(교육개발원, 1998, "교육환경개선 사업평가 연구" 자료).

3)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육부고시 1997-15호 "국가 교육과정"안에 기술되어 있다. 특징은,

성·자주성의 열린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볼 때, 새로운 교육방식을 수용할 새로운 형태의 열린 학습공간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가시적 변화에 대한 교육현장의 요구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열린교육이 실시되는 학교에서는 대도시나 농어촌 지역을 막론하고 학교의 건축적 제반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편복도형 교실의 복도 사이 벽을 헐어내어 획일적으로 학급단위교실 공간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기존의 교실형태로서는 열린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학습공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종래의 일자배치 학교의 학습공간이 오픈화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학습 행태(行態)에 대하여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아니라, 학교 규모·학생수·교실의 크기·출입구 및 화장실의 위치, 이와 관련된 동선 등이 고려되지 않음으로서, 현장에서의 학습공간 구성 및 학습전개방식에 부담감이 가중되어, 총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열린교육의 전망에 대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감마저 잃게 할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열린교육에 대응할 우리나라 학교건축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치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조차도 다양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 외국의 학교에서 구성된 열린교육 시설공간에 대한 이해나 인식은 더욱 부족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무관심과 무력감, 학습공간의 오픈화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열린학습 공간의 구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우리교육의 위기현상에서 제도권내의 새로운 대안교육으로 찾아낸 열린교육은 한편으로, 이러한 열기의 확산이 한국적 교육풍토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서의 충분한 기초연구·준비작업 등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를 자아내는 측면도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그 당시 영국에서조차 시행착오를 겪고 있던 비형식 교육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과하지 않은 채, 자국의 교육에 접목시키려 했던 무분별합과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대안으로서 성급하게 제시하였던 점

12년간의 학교 편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국민공통기본 교육기간”,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을 “교과목 학생 선택 가능 기간”으로 구성하고 있는 점이다.

이 열린교육 쇠퇴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⁴⁾은 우리나라 열린교육의 확산·전개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이며, 학교시설을 계획·설계하는 차원에서조차도 역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교건축에 관한 연구동향은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시기적으로 논문의 주제도 변화되고 있는데, 1970-80년대의 경우는 학교시설이나 환경에 관해 인구의 변화나 단위중심에 관심을 둔 환경공학적 측면을 주로 다루어, 기능적 사고에 바탕을 둔 것들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에 이르러서는 학교시설의 질적 수준에 초점을 둔 물리적 교육환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 와서 열린교육시설에 관한 연구는 열린 학습에 대응하는 공간구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학습공간에서의 인간행태에 관한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시대적·지역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열린교육을 위한 학습공간구성’, 구체적으로는 건축 계획적 관점에서 열린 학습공간이 열린 교수-학습방법에 활용되는 상황과 개념 그리고 유형별 공간적 제반 조건, 공간의 물리적 환경과 공간사용 패턴에 연구의 초점을 두어 조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초등학교 시설계획의 설계지침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研究의 方法

변화된 열린 학습전개를 위하여 기존학습공간과 열린 학습공간에서 어떠한 공간적 요구가 있으며, 그리고 열린 학습공간 속에서 교사들이 어떠한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 또한 이에 대응하는 학생들은 어떠한 행동 패턴을 하고 있으며, 보다 발전된 열린 학습을 위해서는 어떠한 학습공간이 요구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에 조사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열린 학습 전개를 위한 기존학습공간의 제반 문제

4) 허승희, 옥치윤. “초등학교에서의 열린교육현황과 개선방안” (부산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열린교육학회지 열린교육연구 제6집 제1호.(1998.4월호) p.p. 72-73

여 이를 토대로 열린학습공간을 분석·평가함으로써, 바람직한 열린 학습 공간구성 방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방법에 의한 통계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한 기존학습공간과 열린 학습 공간의 전개과정 그리고 '설계도면을 종합 분석'한 오픈화의 유형과 그 특징을 찾아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열린교육의 전망에 대해 기대감이 높은 교사집단과 그렇지 않은 교사집단으로 구분하여, 교수자의 입장에서 전개되는 열린 학습공간의 구성형태와 사용상의 문제점 등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이들 학습공간의 형태에 대하여 학교의 규모·지역·학급당 학생 수·동선체계·실바닥 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요인별·유형별로 비교 분석하면서, 공간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열린 학습 공간 속에서 교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고 있는 학습형태 및 공간활용 수법 등은 어떠한 학습효과를 주고 있는지 조사 분석한다. 그럼으로써 열린교육의 초기단계에서 과도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간적 대응방식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열린 학습공간에서의 학습활동이 향후 발전된 열린교육 단계에서는 어떠한 공간적 요구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3. 論文의 構成 및 內容

본 논문은 크게 여섯 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I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방법을 다루고 있다.

제 II 장에서는 열린교육의 이론과 배경이 설명되었다. 본 장에서는 열린교육의 특징, 학습방법론과 이에 대응해 가는 학습공간 변화에 대한 역사적 배경, 열린 학교의 성립 과정과 사례, 열린교육의 특징 그리고 국내외 동향분석 등을 다루고 있다. 국내외의 동향분석에 있어서는 교육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미국, 일본의 열린교육과 학습공간의 특징적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결들어 우리나라의 열린교육과 열린 학습공간의 특징·발전과정과 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열린교실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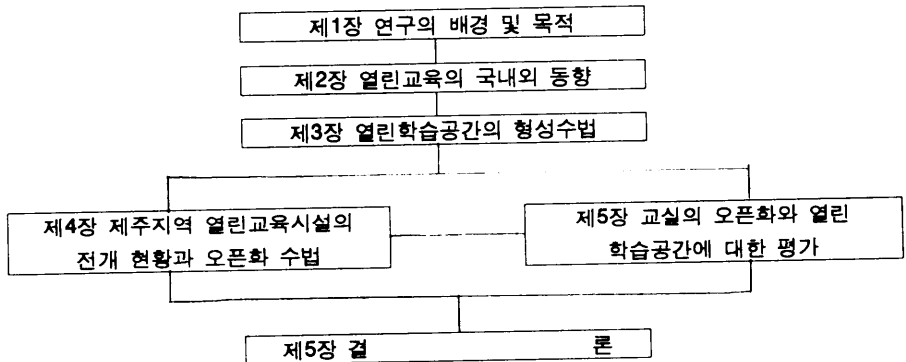
있다.

제Ⅲ장에서는 열린 학습공간의 구성수법을 위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습공간의 오픈화 개념, 오픈스페이스의 패턴 및 활용단계, 그리고 제주지역에서 학급단위 공간의 내부구성과 특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제Ⅳ장과 제Ⅴ장은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장이다. 제Ⅳ장에서는 제주지역 열린교육을 위한 시설의 전개현황과 오픈화 수법, 다시 말하면 제주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설의 전개현황, 오픈화 수법, 열린교실의 전개형태를 다루면서 공간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공간적 특징에 대해 분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Ⅴ장에서는 현장중심의 구체적인 조사 분석내용이다. 여기서는 열린교육에 대한 교사의 의식이 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기 시설된 열린 학습공간이 열린 학습에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건축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열린 학습을 위한 미래의 합리적 학습공간의 형태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의 교육현실과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도출하였다.

제Ⅵ장은 조사 연구 분석되었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함과 아울러, 열린교육의 도입단계에서 과도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 열린교육의 성숙기에 공간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학습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학교시설 계획에 적용할 기본적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과제와 전망을 결론으로 다루었다.



도 I -1-1 분석방법 흐름도

II. 열린교육의 國內外 動向

1. 열린교육의 理論과 背景

가. 概念

열린교육은 1950- 60년대에 영국의 유아학교와 초등학교에서 널리 확산된 비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⁵⁾에서 유래하고 있다. 영국에서 시작된 열린교육운동은 미국, 일본, 한국 등으로 전해졌다. 열린교육(Open Education)이라는 명칭은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생 바츠(Barth)가 처음 쓰기 시작한 이후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다. 열렸다는 것은 '넓게 트인 공간(open space)',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open curriculum)', '탄력적인 학습 집단(open organization)', '트여진 인간관계(open human relation)', '열린 마음(open mind)'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용어 또한 나라마다 다르게 불리우는데, 영국에서는 비형식 교육(informal education), 미국에서는 (open education), 일본에서는 '개성화·개별화 교육', 한국에서는 '열린교육'으로 부르고 있다.

열린교육이란 본질적으로 그 실체가 다양하여 명확히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렵다. 열린교육은 교육의 원리 아래 실제적으로 열린교육에 참여되는 여러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교육의 실제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실제에 적용되는 의미에서의 교육원리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⁶⁾

5) Rogers(1972)는 비형식교육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① 非 제도화(de-institutionalized), ② 개별화(individualization), ③ 장기간에 걸친 관찰에 입각한 학생 평가, ④ 교사의 교육과정 결정, ⑤ 계통학습(구체에서 추상으로).

6) 이 글은 뉴욕주립대학에서 세미나한 자료인 "The Philosophy of Open Education". (RKP,1975)에서 Don Tunnell이 정의한 것임; 심성보 외 역 "열린교육의 철학" 1998. 학지사. pp.33-46

첫째, 자유의 원리: 학습자는 그들 자신이 선택한 교육적 활동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환경의 원리: 교사는 교육적 가능성이 풍부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개별화 수업의 원리: 교사는 학습자들의 흥미에 기초한 개별수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는 학습자들이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넷째, 존중의 원리: 교사는 학습자들을 존중해야 한다.

열린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서 공통적인 점을 찾을 수 있는데, 열린교육은 전통적인 교육에서의 경직되고 폐쇄된 틀을 깨뜨린 자율적인 교육이라고 규정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일제식·주입식·암기위주인 기존교육의 문제점을 없애고 학생 각자의 개성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계순(1996)이 전통적인 교육과 열린교육을 비교한 것이 표II-1-1이다.

표II-1-1 전통적 교육과 열린교육의 비교

구 분	전통적 교육	열린교육
학습대상	집단전체	학생 개개인
학습목표	고정적으로 규정	유연하게 결정
학습형태	교사가 결정	교사와 학생이 함께 결정
공간배치	교과서 중심	다양하고 폭넓은 교재활용
교과시간배당	고정성·정형성	유연성·가변성
학습진행	정형성·계획성	융통성·가변성
	학년수준에 근거·표준화	개별적 집단에 근거·다양화

나. 思想的 背景

열린교육은 제도나 정책이 아니며 오히려 큰 범주에서 보면 교육이념 혹은 철학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열린교육의 사상적인 원류를 더듬어보면, 고대 아테네를 돌면서 젊은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탐구와 발견'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소크라테스와 아동의 전인적 측면과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 훈련에 대해 관심을 촉구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

터 뿌리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열린교육에 이론적 뒷받침을 준 사상가로서는 아동중심접근을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루소(Rousseau), 지식의 기초로서 감각적 경험을 강조한 페스탈로찌(Pestalozzi)가 있다. 그리고 아동 자신이 학습에 참여하는 활동의 중요성과 자율적인 선택을 강조 하였던 프뢰벨(Fröbel), 활동주의 중심교육과 자유선택권 부여 그리고 개인차 인정 등 열린교육정신과 일치한 여러 방법들을 수용하도록 촉진 역할을 하였던 몬테소리(Montessori), 경험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동 스스로 자신의 의문점을 풀어간다고 주장한 듀우이(Dewey) 등이 있다. 현대의 이론적 사상가로서 피아제(piaget), 브루너, 홀트 등도 열린교육의 선구자라 할 수 있겠다.

2. 열린교육의 特徵

열린교육을 구체화하여 정의하는 일이란 그리 쉽지가 않다. 열림(open)의 의미는 닫힘(close)을 알아봄으로서 개념상 접근이 쉬워진다.

‘닫혀 있다’ 라는 뜻은 고정되거나 정형화된 양식(pattern)을 지녔다는 뜻이다. ‘열린교육은 지금껏 닫혀 있음’으로 인해 여러 병폐를 야기한 학교교육의 규정된 양식을 깨뜨림으로써 새로운 교육적 성과를 기대해 보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열림(open)’이 필요한 까닭은 학습자의 인간적인 존중과 권리가 지켜지면서 자유로운 학습과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독립적이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열린교육에서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이를 통하여 ‘어떠한 질적 경험을 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열린교육의 정의는 한마디로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권(學習權)을 부여하여 자아를 실현시키는 개방적 학습과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제반 여건 다시말해 조직과 학습활동· 학습자료와 시설 등이 융통성 있게 개방되어야 한다.

열린교육의 특성은 주장하는 학자마다 그 강조점이 다르다. 니퀴스트(Nyquist)는 열린교육을 교수 접근방법의 하나로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

적인 초등학교 교실의 교구배치나 형식화된 교사-학생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비형식적인, 아동 중심으로 개별화된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적 시도라고 정의했고 모리슨(Morrison)은 개별화를 인정하고 독립심과 자유를 장려할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존중심을 보이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형적인 초등학교 교실을 재구조화(再構造化) 하려는 교육 방식이라고 말했다. 열린교육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터넬(Don Tunnel, 1975)의 견해를 대표적으로 살펴본다.

- ① 학생들은 교실에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원하는 교육적 활동을 선택하여 활동한다.
- ② 교사는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한다.
- ③ 교사는 학생들에게 그들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개별화 학습을 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이 학생들 각자에게 교육적으로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④ 교사는 학생 각자의 존엄성을 인정한다. 우선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자유가 허용된다. 학생의 흥미와 생각이 중요시되며, 학생의 기분 혹은 정서적 상태가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또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며, 교사와 학생이 서로 동등한 존재로 생각된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에게 명령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즉, 교사는 그의 권위를 최소한으로 행사한다.

요약하면, '열린 마음(open mind)', '열린 시간(open time)', '열린 공간(open space)'에서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학습거리가 선택되는 것이다.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생 주도하에 학습이 진행되는 인간존중의 학습활동이 열린교육의 특징이다.

3. 열린 學習과 열린 學習空間

가. 열린 學習

1) 교육방향의 개선

기존의 전통적 교육체제 안에서는 획일적이고 고정화된 전체학습과 교사 위주의 권위적이며 일방적인 불평등 학습 등이 지배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다양성·자율성·평등성·개인의 능력이 강조된 개별성·수월성 등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차원에서 열린교육은 적합한 교육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는데, 이 것은 국가적으로도 세계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방식의 열린 학습에서는 개인의 학문적·기능적인 취향이나 소질, 재능 등을 계발·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중심, 과정중심 학습활동 교육으로 전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 교육방법의 개선

열린 학습은 어린이의 가능성을 계발하여 육성시키는 미래 지향적 교육이다. 또한 개인의 개성과 적성, 수준과 능력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우선 현재의 획일적인 교육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교육방식을 개선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① 40분 단위 학습시간 지양

- 교과 학습시간을 모두 40분 단위로 묶지 말고 교과의 내용과 어린이들 수준·능력에 따라 사전 검토하여 융통성 있게 활용하므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한다.(40분, 50분, 60분, 80분, ……)

② 시종(始終)시간 일제식 타종 지양

- 학년별 교과 수업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종전에 실시해오던 40분마다 수업시 종의 타종은 지양하되, 전교생의 수업 시작시간과 학년별 종료시간은 일정하고 그 사이의 학습시간은 학년·학급에 알맞게 적용 실시한다. (학년 학급별 시계 계시)

③ 교과서 의존성 탈피(목표 지향 - 내용 중심)

- 교과서를 활용하는 예는 좋으나 완전히 의존하는 예는 다양성을

7)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우리 실정에 적합하도록 열린수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현장 중심의 것으로서, 현장에서 실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유우연의 “열린 교육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3권제3호. 통권제8호. 1996.12월호에 실린 내용을 참고하였음.

기할 수 없다.

- 내용도 중요하나 뚜렷한 목표설정이 중요하고 목표에 따른 목표 도달을 위한 내용을 제시하며 '꼭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자료를 제공·활용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④ 교사 주도적 교수학습 지양(이동 중심 학습 활동으로 전환)

- 학습은 어린이들이 하는 것이다.
- 프로그램 작성은 아동중심 활동 학습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방법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자율적 해결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지나친 간섭이나 설명은 자율학습능력을 상실시키는 예가 된다.

⑤ 단일 교과 학습체제 지양(통합 교육과정 운영 연구)

- 이질적인 타 교과와 상관관계를 적용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한다. 통합운영은 단일교과 학습에서 얻지 못한 효율성을 터득할 수 있다. (교과와의 관계 : 국어-도덕-사회, 자연-수학-미술, 국어-음악-미술)

⑥ 전통적인 시간별 교과배정 지양(교과 선택 학습)

- 교과학습 시간을 고정 배열하는 예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린이들에 따라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교과나 다른 학습을 먼저 해야 모든 학습이 잘 풀려 가는 예가 있기 때문이다.

⑦ 학년 학급 반 개념 지양(이동식, 분산식, 학습방법 전개)

- 능력에 따라 반 어린이들을 이동하면서 학습을 한다든지, 팀티칭 교육을 적용해 이동학습을 하는 예다. 다른 반 어린이들과 서로 협력체제도 이루어지고 능력의 차에 따라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⑧ 교실에서만의 학습활동 지양(다양한 공간 활용)

- 학습내용에 따라 교실이 아닌 다양한 공간도 활용하여, 변화적인 학습장소를 제공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꾀하도록 한다. 어린이들에 따라서는 장소를 변경해줌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더 올릴 수도 있다. 교사를 향해 딱딱한 의자에만 의지하는 예는 지양해야 한다.

⑨ 능력법 학습전개(개인차 고려 - 수준별 학습 전개)

- 학급 어린이 중에는 교과에 따라 능력이나 수준의 차가 매우 심하다. 학습 프로그램을 작성할 경우 어린이들의 수준이나 능력을 고려한 학습을 전개하는 일이다. 어린이에 따라 학년 수준 이상인 경우와 미달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화보충 학습지를 작성 제시하여 수시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는 학습을 하도록 한다.

⑩ 일제 학습 지양

- 학급 어린이 전체를 상대로 하는 일제식 방법도 있겠으나 되도록이면 소집단으로 분류하고, 어린이들의 학습시간을 많이 배정하며 충분한 학습경험을 갖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교사의 설명과 지나친 간섭 등을 지양하면서 어린이들의 학습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무엇을 어떻게 하려 하는가’, ‘학습활동의 과정은 바람직한가’, ‘어느 부분에 부딪히고 있는가’,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관심을 갖도록 한다.

⑪ 소질 계발 학습 전개(취향별 기능별 클럽 활동 활성화)

- 21세기는 다양화 시대다. 어린이에게는 누구나 꼭하고싶은 대상이나 내용이 있다. 종전과 같이 일반 교과에만 치우치다 보니 어린이들의 다양한 가능성이 교과학습 이외의 것으로 모두 무시해 버려졌다. 말을 잘하는 어린이에게는 남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나 변호사가 되도록 한다든지, 노래를 잘 부르는 어린이에게는 성악가가 되라고 한다든지, 노래를 잘 듣고 흥미 있어 하는 어린이에게는 작곡가가 되라고 한다든지 등의 지도적 조언은 성공의 계기가 된다.

⑫ 예습과제의 중시(사전학습중시)

- 본시학습에 충실성을 주기 위해 본시학습에 필요한 사전학습을 제시하여 학습과정의 활성을 꾀한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들의 학습은 매우 긍정적인 학습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상과 같이 열린교육이란 어린이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꼭 가르쳐 주어야 할 내용들을 적성이나 취향·수준능력의 차를 고려하여 이에 따른 다양한 학습 계획 하에 어린이의 활동중심 학습활동으로 전개하려는 개방적인 교육인 것이다. 유우연(1996)은 열린교육의 기대효과에 대해 표Ⅱ-3-1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II-3-1 열린교육의 기대효과

	과 거	현 제	기대 되는 효과
1	○ 학습전개 40분 단위수업 실시	○ 하투일과에 대한 아동과의 사 전협의 시간운영(일일 학습목표 확인 및 안내) ○ 40분단위의 수업시간 융통성 적용	○ 어린이에게 학습목표 확인이 잘된다 ○ 과정학습에 충실성을 기할 수 있다 ○ 시간이 많아진다
2	○ 교과서에 의존 ○ 일제 학습	○ 교과서를 활용(자료, 각종기자 재...) ○ 다양한 학습전개(개별, 소집 단)	○ 학습활동이 활발하다
3	○ 교사주도적 학습	○ 아동중심학습(활동중심학습) ○ 어린이활동이 주로 많음	○ 자율성, 다양성, 긍정성 향상 ○ 협동적이고 의욕적이다
4	○ 일정한 모형의 해결 상에만 의존하는 학 습 ○ 개인용 책상	○ 다양한 책걸상 ○ 학습장소가 학습내용과 활동에 따라 다양 ○ 분단형 책상	○ 학습활동이 자연스러우며 창의적 이고 사고적이다 ○ 욕구와 흥미가 충만된다 ○ 이해와 터득이 빠르다
5	○ 교과서나 학습장에 의 존	○ 교과서, 각종도서, 학습장, 각종 학습지의 다양	○ 사고력 신장 ○ 심화 보충학습에 적절
6	○ 수업외모형 형식 (일제식, 전체학습)	○ 능력위주(기초) (각교과 과정 위주)	○ 학습하는 방법학습(학습역 배양) ○ 자율학습력 신장 ○ 기초능력이 배양된다 ○ 학습의 전이가 높다
7	○ 수업의 장소 단순	○ 학습활동이 다양(원활)	○ 학습활동이 다양(원활)
8	○ 도서실 의존(동화책)	○ 각종도서 교실에 비치 ○ 각종 사전류, 도감류, (참고도서) (탐구력 제공)	○ 능력과 취향에 따른 학습활동 지향
9	평가 ○ 학습상지향(총괄평 가) ○ 실기평가 ○ 단계평가(상·중·하· 수·우·미·양·가)	평가 ○ 학력상 지향(진단, 형성,총괄평가) ○ 영역별 기술평가 ○ 개인의 특성 제시	○ 기초학력정착(수준별) ○ 열등의식감소 ○ 과학학습중시
10	○ 환경구성방향 ○ 단순성(게시판작품 위 주, 새소식 교사위 주)	○ 환경구성방향 ○ 다양 (게시판 학습의 정보자료 게시, 어린이들에 의해서 게시)	○ 학습에 새로운 정보제공 ○ 학습활동 계획 게시 ○ 학습결과물 게시 ○ 학습내용에 확인이 잘된다
11	○ 복습과제	○ 연습과제 체험 과제	○ 본시 학습활동이 활발하다
12	○ 담임배정 (해마다 수시배정)	○ 담임배정 (가급적 고정배치)	○ 학년 전문성을 갖게 한다
13	○ 교사업무량 단순 (일반사무에 대한 업무 량)	○ 교사업무량 다양 (교과학습 업무량 증가)	○ 매일의 수업을 위해 항상 연 구한다 ○ 수업자체에 안전성을 기한다 ○ 핵심있는 학습활동 전개된다

나. 열린 學習空間의 特徵

교육과정에 맞는 교육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교육 목적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과 이를 수용하는 시설은 상호 의존성이 매우 높다. 열린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열린 교과과정에 맞추어 학습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열린교육시설은 열린교육의 이념과 철학에 근간을 두고 구성되어야 하겠지만,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교육과정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간의 융통성과 적응성이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모리슨(Morrison, 1976)은 아동중심의 환경(교실)의 재구성을 강조한다. 교육자들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학습공간을 묘사할 때 '흰히 트여 개방된', '간단한', '융통성 있는', '여유 있는', '넓은', 등의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또는 '흥미진진한' 이라는 표현도 서슴치 않고 있다.⁸⁾ 열린학습 전개를 위하여 오픈화된 학습공간을 열린 학습공간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교육시설의 적극적 의미에서 본 열린 학습공간이란 천정과 바닥과 4개의 벽면을 가진 거대한 공간에 이동할 수 있는 간막이나 벽을 설치하고 다양한 학습활동에 따라 주어진 공간을 특정한 모양으로 융통성 있게 재조직할 수 있도록 고안된 거대한 미디어센타를 의미한다.⁹⁾

4. 外國의 열린교육 動向

일반적으로 열린 교실에 대한 정의는 각 국가별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추진방법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열린교육은 1970년대 중반에는 미국, 1980년대 중반에는 일본에서 크게 유행했다.

8) 朱玲珠 “열린학습공간으로서의 미디어센타의 새로운 역할”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권 제2호(통권2호) 1994. 12 p.22

9) 상계서. p.22

이 장에서는 열린 학습공간을 추진하여 온 영국, 미국, 일본에서 열린 교실의 발달배경과 대표적인 사례를 통한 열린 학습공간의 구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가. 영국의 열린교육과 學習空間

영국에서의 열린교육은 비형식교육 또는 아동중심교육이라는 용어로 불리운다. 1816년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이 세운 유아원(nursery school)에서 출발한 비형식교육은 프리벨, 몬테소리, 페스탈로찌, 피아제, 듀이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왔다.

문교부가 1956년 최초로 세운 열린 설계학교(open plan school)는 버킹검셔의 애마삼 초등학교와 옥스퍼드 셔의 휘메르 초등학교이다.

영국의 비형식 교육은 교장과 교사들이 교육과정 편성에 상당한 재량권, 아동들의 폭넓은 자유, 소규모 학교, 국가 지원, 낡은 시설을 현명하게 활용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대개 한 교사가 전 과목을 가르치며 통합교과의 장점을 살리는 데 강조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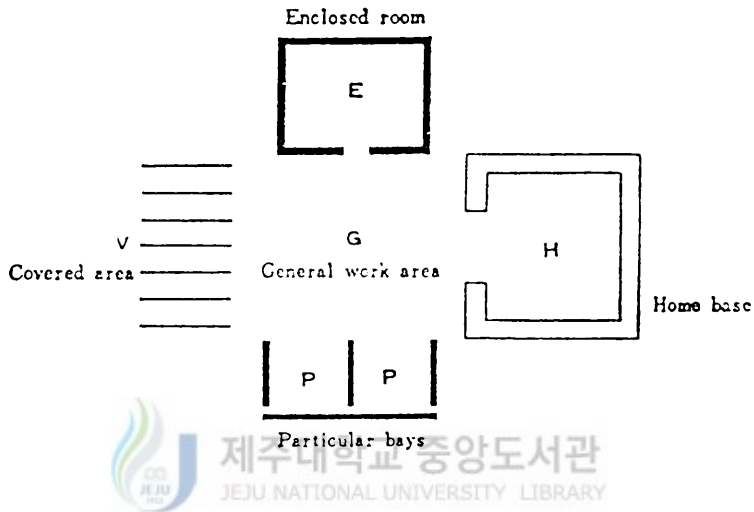
영국의 Primary School의 학습공간의 특징은 각기 개개의 목적을 갖는 작은 학습코너를 형성하고, 여기에 맞추어 개개인의 학습을 전개하는데 있다. 그 대표적인 형태는 Eveline Lowe Primary School (1965)로서 다음 5종류의 학습공간을 구성하고 있는데, 각 공간별 특성은 도II-4-1에서 보여주고 있다.¹⁰⁾

- ①. base - 학습, 생활집단의 귀속의 장소로 단시간의 모임을 위해서 집합한다. 우리의 '학급교실'과 유사한 곳이지만 크기는 훨씬 작고 학습의 장으로서의 기능은 없다.
- ②. general - 산수, 사회 등 일반교과가 진행되는 학습공간으로서 교유의 학습테마를 갖는 많은 코너로부터 형성된다.
- ③. practical - 공작, 그림, 요리, 관찰 등 실습적인 성격을 갖는 활동에 대응되는 공간으로 물건 씻는 곳, 공작대 등과 같은 많은 코너로부터 형성된다. 우리의 '특별교실'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으로 영국의 primary school에서는 특별

10) 丁育聲 “열린교실 지향의 국민학교 학습공간 요구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p. 34-36.

교실이 없고 상당하는 활동이 여기에서 행해진다.

- ④. Activity - 연극이나 block놀이 등 약간 동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 일반적으로 저학년이 속한 곳에 많이 설치된다.



E(Enclosed room) : 벽으로 둘러진 안정된 분위기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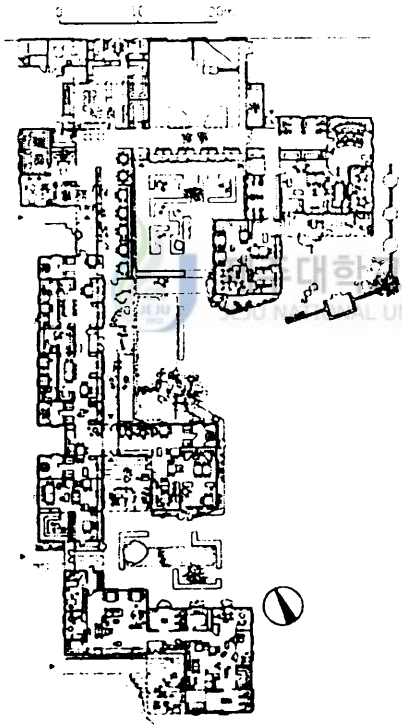
H(Home base) : 정적인 학습을 하고 작고 조용한 공간

G(General work area) : 동적인 학습을 하는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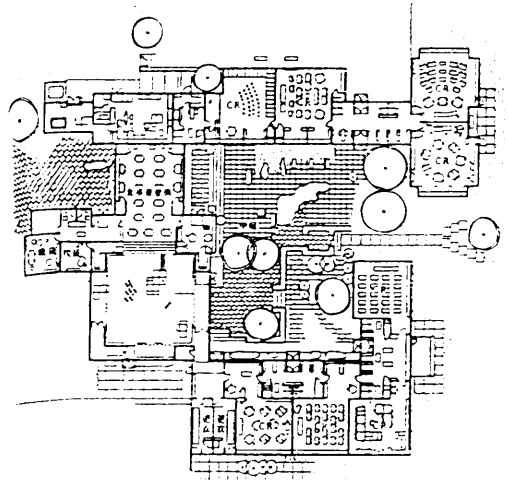
P(Particular bays) : 소그룹을 위한 작은 특별공간

V(Veranda or covered area) :베란다 또는 가려진 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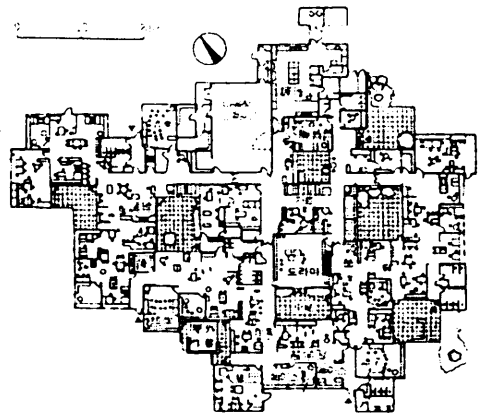
도II-4-1 초기 Eveline Lowe Primary School의 학습공간 개념도



이블린로우초등학교



에마삼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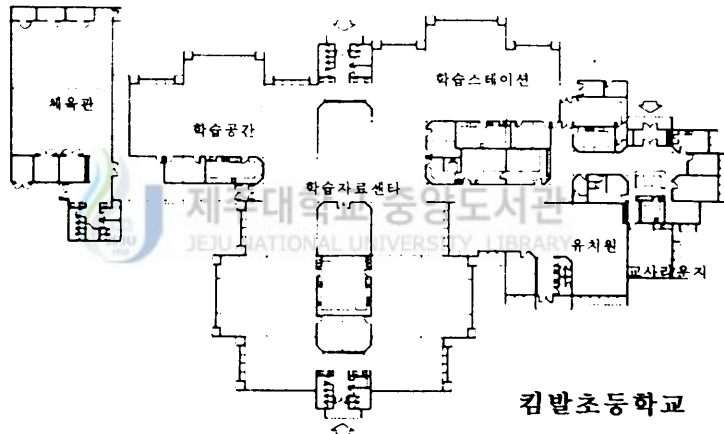


길몬트초등학교

도II-4-2 영국의 열린학교 평면도

나. 미국의 열린교육과 學習空間

미국에서 열린교육이 도입 배경을 보면, 1950년대에 진보주의 교육개혁의 실패와 소련의 Sputnik 충격¹¹⁾으로 인하여 학문중심의 주지주의 교육이 성행되었다. 그러나 미국사회 전반적으로 1960년대에는 '인권'이 강조되면서 열린교육의 출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개혁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¹²⁾ 이러한 시기에 영국의 '프라우딘 보고서'¹³⁾의 출판은 빈센트 로저스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교육연구자들이 대거 영국 방문의 줄을 잇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마침내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걸쳐 미국의 열린교육은 새 장을 열게 된다.



도II-4-3 미국의 열린학교 평면도

- 11) 1957년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우주선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하자 이에 대해 충격을 받은 미국에서는 수학, 과학 등 개별 교과목에서의 학문적인 프로그램을 강조하게 되었다(Scheirer, 1988).
 - 12)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에서의 도날드(Rore Rasmussen Donald)와 라스무센(Rasmussen)의 활동, 뉴욕시 할렘에서의 콜(Herbert Kohl)의 활동, 거리학교와 지역학교의 출현, 무학년제, 팀학습, 개인학습(independent study), 창의성의 강조 등 모두 1960년대 초에 나타난 것들이다(Harrison and Glaubman, 1982).
 - 13) 1966년 영국의 중앙교육심의위원회 위원장 '프라우딘'여사에 의해 영국 내는 물론 여러 나라의 교육 조사, 심의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어린이들과 그들의 학교"라는 이 보고서는 '하워드 보고서의 방향이 타당했다'고 평가하여 비형식 교육의 세계적인 파급에 큰 영향을 주었다.
- *하워드 보고서: 1931년 영국의 교육자문위원회 보고서로서 교육은 아동 중심의 교육이어야 하며, 교육과정은 활동이나 경험 중심으로 생각하여야 하고, 교과가 수업에서 분리되는 전통적인 실천은 제고(통합교과의 필요성)되어야 한다는 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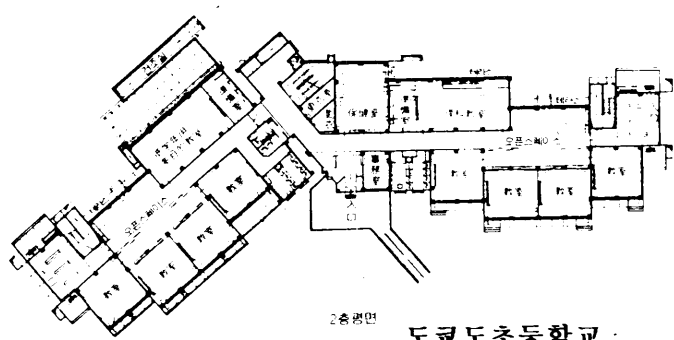
미국의 열린교육은 팀티칭(team teaching)을 중요시하며, 수업방식은 대개 2개 학년 이상을 블록으로 묶고 다양한 코너학습을 실시한다. 또한 통합교과를 선호하는 영국과는 달리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이나 개인의 흥미에 부응하는 수업방법이 이루어지며, 영국에 비해 학습공간이 열려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열린공간은 복합형의 오픈(open)건축으로서 학급이 해체되어 고정적인 학급교실은 없고, 가구 등을 가지고 필요에 의해 구획된 학습공간을 구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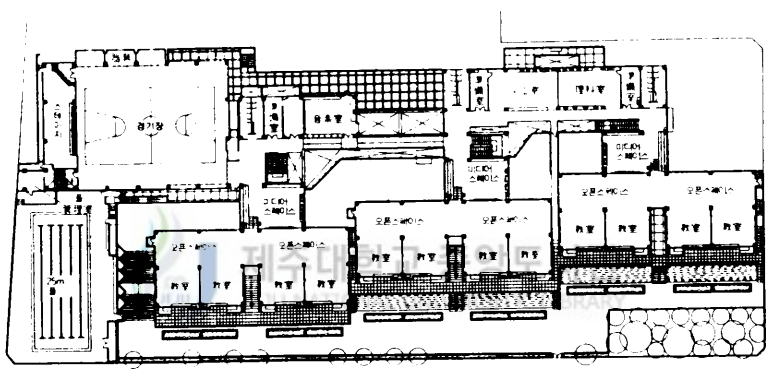
다. 일본의 열린교육과 學習空間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0년대 초반부터 일본은 근대화 교육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과열입시·등교거부·교내폭력·청소년 비행 등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 된다. 일본에서 진보주의 교육은 미국 유학에서 열린교육사상을 접한 기타자와야지로에 의해 1970년대 초에 도입되었다. 그는 시즈오카 현의 사립학교 가또학원 초등 학교 교사들의 호응으로 열린교육을 펼침으로써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가또학교 외에도 1973년에는 삿쵸로의 오까다마 소학교, 가또에 의해 설립된 오가와, 우노사, 이께다 소학교 등이 열린교육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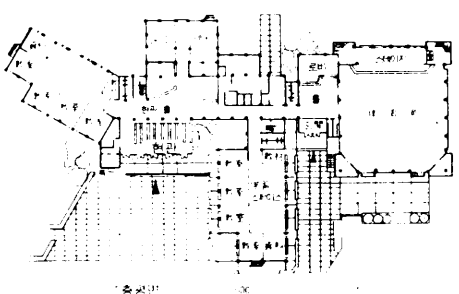
일본의 열린교실 학습공간은 학급단위의 일제학습을 위한 보통교실과 특별교실을 확보하면서 가까운 곳에 다목적스페이스를 연결하여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존의 수업활동의 장점을 유지하고, 학습집단의 탄력적 편성이나 다양한 학습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층평면
도쿄도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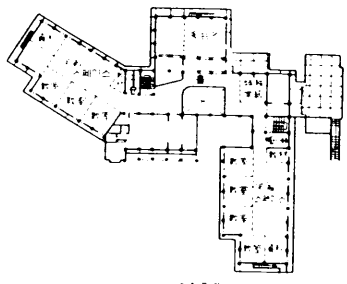


2층평면
미야마에초등학교



1층평면

도야마현초등학교



2층평면

도II-4-4. 일본의 열린 학교 평면도

5. 우리나라의 열린교육과 열린학교

가. 우리나라의 열린교육

서구식 학교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열린 교육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었음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서당교육에서도 개별적·능력별 교육내용 선정방법이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문답식 교육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열린교육과 전혀 무관하게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은 일제시대 이후로 80여 년밖에 안 된다. 이러한 일제시대의 교육에 대하여 주요섭(1930)은 '주입식과 일률형식(一律型式)'의 교육방법이라고 비판하였는데, '주입식' 교육은 '독립적, 자발적 연구와 비평을 무시하며, 아동의 개성을 말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일률형식'이란 '우주간만상의 대소(大小), 원근(遠近) 후박(厚薄)을 못보고 만상을 모두 똑 같은 것으로 보는 종류의 교수법'을 의미한다.¹⁴⁾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교육의 변화에 대한 노력은 1930년대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진보주의 태두 존 듀우이와 패트릭 등의 강의를 들었던 오천석, 김활란, 서은숙 등이 귀국 후에 특히 유치원 교육을 중심으로 벌인 활동과 주장들, 또 해방후인 미군정기(1945-48)에 오천석이 중심이 되어 전개했던 '새 교육운동'은 그 목표가 자유·평등·아동중심·개성존중·자아실현' 등으로 열린교육과 일치하는 점이 많았다.¹⁵⁾

우리나라에서 열린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1986년에 운현초등학교와 영훈초등학교에서 비롯된다. 교실 벽을 터서 열린 교실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영훈초등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운현초등학교는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30명의 작은 학교로 교실의 크기도 풍족하였다. 그러나 영훈초등학교는 36학급에 학급당 학생수 40명, 교실의 크기도 기존의 편복도 일자형의 20평 넓은 교실로서, 이러한 학교에서 열린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환경이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열린교육 확산에 대한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열린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학교의 규모가 작아야 좋다. 실

14) 조연순 "한국초등교육의 기원-상고시대에서 일제시대까지" 1995. 서울 지학사 p.158

15) 제주도 교육청 "자기주도 장학 학습자료 열린교육" 1996. 제주도 p.32

제로 영국에서 열린교육이 성장하게 된 가장 주된 요인은 학교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는 점이라고 한다. '프라우딘 보고서'에 따르면 주립 초등학교의 대부분이 100명 내지 300명의 학생정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¹⁶⁾.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시설의 실태를 보면, 대도시에서는 과밀된 학생수의 과대학교이며 학교 운영방식은 학급교실인 보통교실과 과학·음악실 등 특정 교과목의 목적교실인 특별교실이 있는 특별 교실형으로서, 일제 강압기의 교육시설에 대한 영향이 잔존되어 오면서 여태껏 표준도¹⁷⁾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표준화는 변변치 못했던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형편으로 보아서, 늘어나는 학생 수와 학급 수를 소화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운영 형태였다는 평가가 크다고 하겠다. 어쨌든 열린교육은 이를 시발로 하여 기존 학교교실을 이용한 최초의 공립학교인 안중초등학교와 충분히 연구되어 공간 확보된 사립의 상명초등학교 등으로 전파되고 이제는 그 씨가 뿌려졌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열린 학교 공간구성은 실 공간의 오픈화 전개방식에서 영국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하다. 열린학습을 위한 소요공간을 보더라도 단지 복도공간을 교실공간으로 유입하여 크기를 키우고자 한 점 외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아직 넉넉한 공간 확장 및 필요공간의 구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건축의 흐름¹⁸⁾에서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 선진국의 수준에서 볼 때, 아직 충분한 제2차 교육혁명(교육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선진국의 제3차 교육혁명인

16) L. B. Plowden(1967). *Children and Their Primary Schools*. Report of the Central Advisory Council for Education(London: H. M. Stationery Office) 열린교육연구회 "열린 교육의 이해" 1994. 양서원 p. 102(재인용).

17) 교실공간의 기준도는 1885년의 일본의 소학교령에서 한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기준으로 규정한 '아동 수 80인 이하는 1인의 교원이 수용할 수 있다'라는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조선에서도 소학교 교실 최대의 크기가 일본 기준에 의하여 4칸×5칸(66㎡)가 사용되었는데, 이 기준은 최근까지도 건축양식과 구조방식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18) 역사적으로 본 초등학교 시설의 공간형태의 변화는 기존의 관청이나 가옥을 수리하여 사용하였던 개화기 이후의 근대학교, 오늘날의 학교형태의 모태인 일자형 편복도 20평형 교실의 일제강압기 학교, 1962년 제정의 문교부의 표준설계 학교(중전과 유사하나 구조만 틀림), 1980년에 공고된 "학교 교사 표준설계도"에 의해 건축된 학교(7.5×9:교실, 2.5×9:복도), 1990년문교부의 "국민학교 현대화 모형 계획에 관한 연구"를 통해 건축된 학교, 오늘날의 열린학교 등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국민학교 교수·학습 공간 재편성 모형 개발" 연구보고서 RR 95-9 pp. 45-47 요약).

Open-School의 의미는 어떻게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인가. 이 점은 미래 한국의 학교건축에 대하여 논할 때 매우 논쟁의 핵심이 될 것이다.¹⁹⁾

우리나라 열린교육의 도입이 이미 13여 년을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교육을 위한 열린 공간구성에 대한 방안 연구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린교육을 먼저 전개한 학교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열린교육의 현주소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 열린 학교 사례

1) 운현초등학교

운현초등학교는 1986년 3월 5일 개교와 동시에 열린교육을 실시해 왔다.

열린 공간을 보면, 교실과 복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트여져 있다. 1층의 1, 2학년 교실은 교실을 아코디언 벽으로 구분해 놓은 열린 공간의 형태로 하여 필요시에 커다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학습자료의 교환과 학년간의 자유로운 연계를 도모하게 하였다. 개별 학습 및 그룹 학습 등의 다양한 학습 방법에 대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도입하여 종래의 보통 교실과 특별 교실뿐만 아니라 학년 공간·교과 개방 공간·학습 공간·정보 자료 센터 등의 공간을 두었다. 또한 교실과 복도 공간은 오픈화 되어 있으며 복도 공간을 통로공간 뿐만 아니라 학습영역에 포함시켜 전시나 게시 공간 혹은 학습의 한 영역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다.

교실 한 코너에 교사 공간을 설치하고, 바닥에 카펫을 깔아 아동이 자리에 앉아서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소규모 그룹 활동공간을 만들어 미술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컴퓨터 교실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컴퓨터는 학습 전반에 걸쳐 일상적으로 이용하기 쉬운 공간에 배치된다.

운현초등학교는 최초로 열린교육을 도입한 학교로 사립학교여서 재정적 지원이 풍부하며, 학급당 학생수도 30명 미만으로 학교규모에 있어서도 열린교육에 적합하여 충분한 학습 공간을 갖추고 있다.

19) 김승재 “학교건축에 관한 소고” 한국시설학회지 제1권 제1호 (창간호) 1994.6 p.85

2) 영훈초등학교

한국의 열린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영훈초등학교는 당초 열린교육의 도입단계에서 과다한 학급 인원의 해소와 전통적 교육관에 젖어 있는 교사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것이 우선 이었다. 영훈초등학교는 일본의 열린교육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 것은 시기적으로 미국의 열린교육이 이미 1960-70년대에 시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 외에도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문화권에 속해 있어서 모델로 삼기가 수월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영훈초등학교는 처음의 학급 인원수가 50명 이상이었던 것을 열린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40명으로 축소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공간구성을 보면 부족공간의 확장을 위해 교실과 복도 사이 벽을 헐어 복도공간을 활용하고, 옆 반과도 협력하여 교실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각 학년별 학급의 중앙에는 교사들의 휴식공간이 있으며 컴퓨터와 각종교재, 그리고 회의용 탁자가 놓여있어 수시로 동학년(同學年)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제 수업은 물론 소집단 학습·혼자 하는 개별 학습·2개 학급 또는 3개 학급이 함께 하는 팀티칭도 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의 다목적실을 마련해 주고 있다.

그리고 학년별 교사연구실이 있어 자료보관 및 제작과 교사의 회의실을 겸용하고 있다.

3) 안중초등학교

주로 사립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던 열린교육의 체제를 교육 환경이나 교육 여건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공립학교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을 안고 1989년 공립학교에서 처음으로 열린교육을 실시하였다.

안중초등학교에서는 교실의 벽을 터서 건축 시부터 의도적으로 열린 교실을 구성한 것과 기존 교실에서 교구의 배열에만 변화를 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전자의 경우 교실의 벽은 아코데온 간막이로 구획하여 공간의 융통성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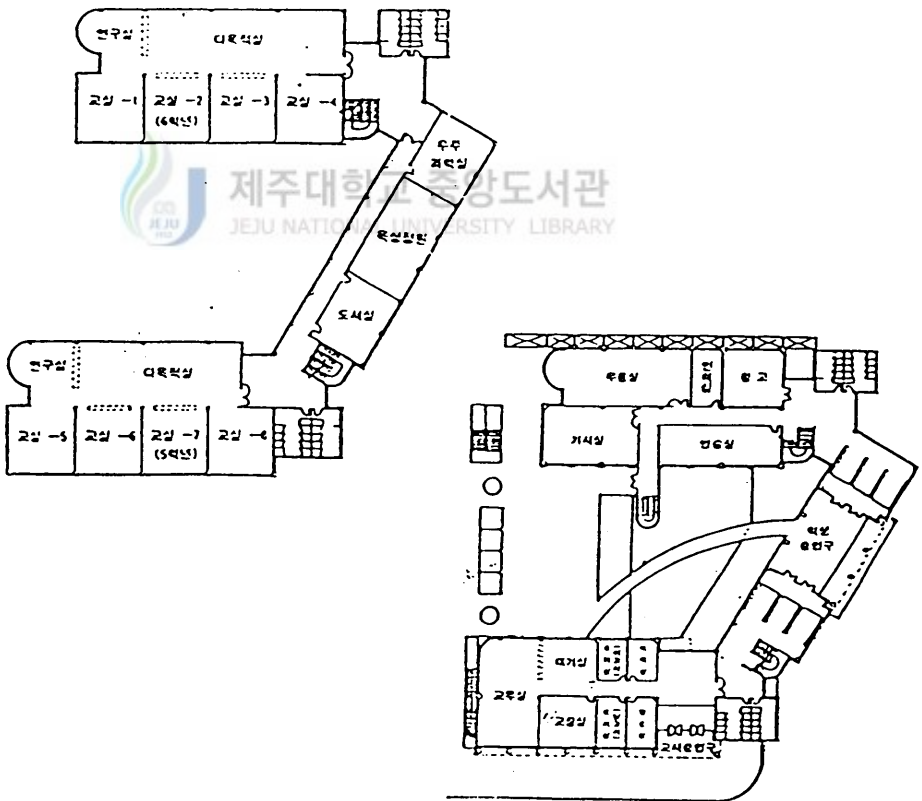
4) 상명초등학교

상명초등학교는 1989년 학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이전 계획에서부터 열린 학교가 구상되었다.

열린교육에 대응하는 교실의 특성으로는 발표회·토론회·수업 등으로 활용되는 열린다목적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각 학급 공간은 복도와 벽이 없이 3면의 벽체 만으로 공간적인 분할을 피했으며, 열린 공간에는 칸막이용 접이식문을 설치해 독립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부여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열린 학교로서 기존 교실의 2~3배정도 되는 넓은 학습공간을 가지고 있다.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장소에 최대한으로 학습에 대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구성되어 있다.



도Ⅱ-5-1. 상명초등학교 교실 평면도

제Ⅲ장 열린 學習空間의 形成手法

1. 學習空間 오픈화의 意義

현재 우리나라의 열린교육은 철학이나 이념으로 보는 관점, 교수-학습의 관점으로 보는 관점, 교실환경의 혁신으로 보는 관점 등이 모두 어우러진 상태로 그 개념이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⁰⁾

‘오픈(open)’이라는 말은 종래의 폐쇄적인 학교 환경을 개방하는 뜻 외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교육내용과 방법이 획일화, 정형화한 것을 다양화, 개성화한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교육환경 차원에서 보면 학습공간의 오픈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학습공간의 융통성·연속성·다양성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 융통성(融通性): 열린 학습에서는 학습집단의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된다. 또한 학습내용에 따라 학생들 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융통성(Flexibility)이란 열린학습에 대응하는 공간적 융통성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장래의 교육적 변화에 대한 융통성도 포함하고 있다.

- 연속성(連續性): 개별 또는 소그룹 학습집단의 움직임이 학습활동의 변화에 따라 공간적·시각적으로 연속적인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자주적이고 다양한 학습이 전개될 수 있다.
- 다양성(多樣性): 열린 학습공간에서는 별도의 목적교실로의 아동 이동

²⁰⁾ 유승희, 김두련 “한국초등학교 저학년 열린교실의 특성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열린교육학회지 제6집 제1호 1998.4 p.150

이 불필요하도록 여러 가지 교재나 기기, 학습준비물 등이 구비되어 다양한 학습활동이 전개됨으로써 학습 공간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2. 오픈스페이스의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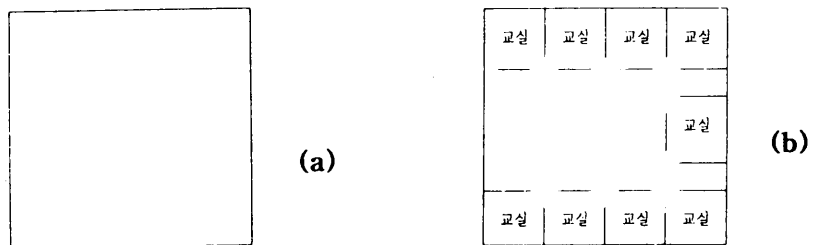
전통교실에서의 일제학습은 특별교실이 이용되는 교과 외에는 고정되고 한정된 학급교실 안에서 수업이 이루어 졌다. 이러한 수업형태는 학습공간의 폐쇄성과 학습활동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인간 심성의 자유로운 계발을 억제하였다.

열린 학습공간의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학습공간’이라는 점이다. 오픈스페이스가 구성된 열린 학습공간은 오픈스쿨의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열린교육이 지향하는 학습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열린 학교는 학교 시설의 역사성이나 교과운영 방식, 그리고 문화적 유감 등으로 인하여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교실 공간을 남긴 형태로 오픈화가 전개되고 있다. 가토 유키츠구(加藤幸次)는 오픈스페이스 스쿨의 패턴에 대해 3가지를 들고 있다.²¹⁾

가) 학습센터형

학습센터형은 교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간이 칸막이로 여러 개의 학습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있는 ‘하나의 넓게 탁 트



도III-2-1. 학습센터형(Learning Center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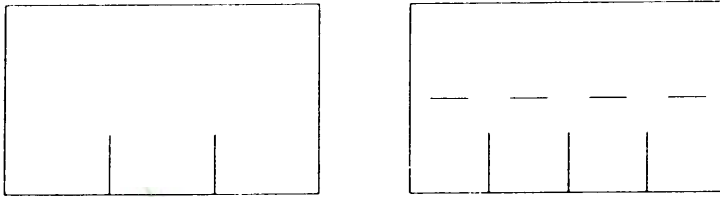
21) 홍미리, 이훈우, 성용구 공역 “열린공간. 열린교육” 동문사 1997. pp.9-10.

인 공간을 가진 교실형(a)'이나 '학습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교실이 방사형으로 배치된 형(b)'이 있다.

나) 작업공간형

작업공간형은 여러 개의 교실과 직접 연결된 하나의 커다란 공간을 마련하여 열린 공간을 교실의 일부로 활용하는 형태로 '교실 개방형'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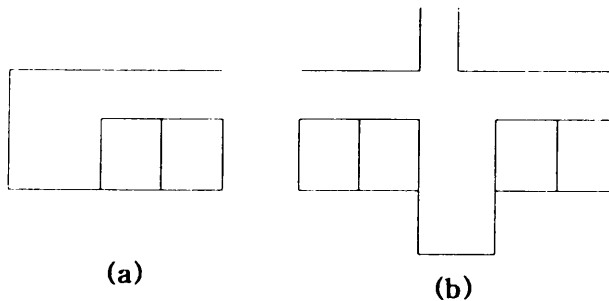
또, 기존의 교실과 열린공간 사이를 벽 또는 칸막이로 구분하는 '독립교실형'이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도III-2-2 작업공간형(Work Space Model)

다) 특별교실형

특별교실형은 재래의 교실 옆에 도서실이나 시청각실로 이용할 열린 공간을 가진 교실로, '다목적 교실형'이라고도 한다. 또 다른 형태로는 교실 사이에 도서실 또는 라운지 등으로 사용될 열린 공간을 가진 것으로 '라운지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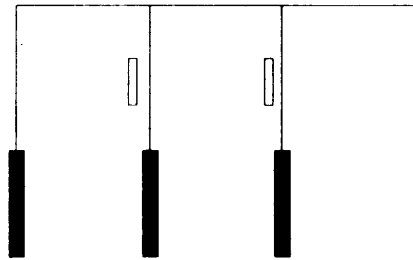


도III-2-3 특별교실형

3. 오픈스페이스의 活用段階

열린교육이 확산 전파되고 열린 학습공간이 전국 곳곳에 구성되고 있음에도 교사들의 오픈 스페이스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껏 부정적이거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현장에서의 거부감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직 열린교육 도입의 초기 단계이므로 교사들이 익숙해진 과거의 전통적 교육방식에 미련을 두고 있거나, 공간은 열려 있지만 적절한 학습용구가 구비되지 못한데 기인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학교에서 오픈 스페이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정한 단계가 있다.²²⁾

- 제1의 단계: 「교실을 확장해 사용」 하는 단계이다. 즉, 초등학교로 말하면 옆 학급과 관계없이 칸막이를 이동시켜 또는 책상과 로커를 오픈 스페이스로 옮겨서 자신의 학급 스페이스를 넓혀 사용하는 단계이다. 확실히 교실이 넓어 보이며, 넓어진 곳에 책상과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고 교재와 교구도 설치할 수 있다. 이 넓어진 공간을 활용하여 때때로 개별 지도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이 방법이라면 옆 학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교사의 생각대로 오픈 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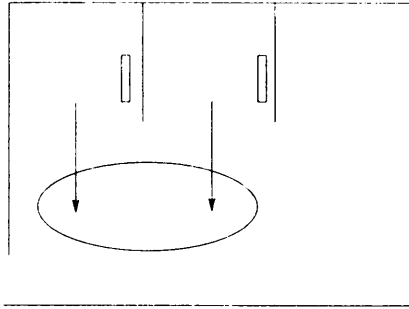


도Ⅲ-3-1. 제1단계(교실을 확대 사용)

- 제2의 단계: 「복수 학습이 협력해서 오픈 스페이스를 사용」 하는 단계이다. 초등학교로 말할 것 같으면 옆 학급과 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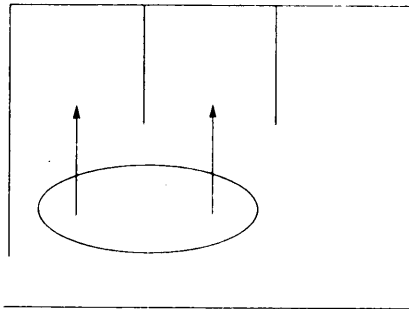
22) 홍미리, 이훈구 공역 “열린공간 열린교육” pp.184-186.

짜서 함께 오픈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행히
 도 초등학교에서는 일과표를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용
 이하다. 같은 시간대에 수학이나 국어 등을 넣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같은 학년의 복수학급이 하나가
 되어 같은 수업에 오픈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도Ⅲ-3-2. 제 2단계(복수학급이 협력해서 사용)

· 제3의 단계: 「오픈 스페이스를 학습 활동의 중심 장소로서 사용」 하는
 단계이다. 복수의 교사가 협력하여 교실 공간에 학습 활동
 의 중심을 두는 것보다 오픈 스페이스를 중심 공간으로 하
 면 교실 공간은 오히려 보조적인 스페이스로 사용된다. 이
 전환은 중요하다.



도Ⅲ-3-3. 제 3단계(Open Space를 활용이 중심장소로 사용)

- 제4의 단계: 「학교전체를 학습 활동의 장소로 사용」 하는 단계이다. 다목적홀, 정원, 교사(校舍) 주위의 공간 등 공간 전부를 오픈 스페이스로 생각해서 학습 활동을 실시하는 최후의 단계이다. 수업은 교실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 오픈 스페이스는 물론이고 학교 전체를 오픈 스페이스로 보고 수업을 행하는 단계이다. 초등학교에서 말하자면 ‘여유의 시간’을 사용한 학습활동은 전교 체제의 바탕에서 학교 모두의 공간을 사용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4. 열린 學習空間의 內部構成 및 特徵

가. 열린 學習空間의 內部構成

학습자 중심에서 열린 학습을 위한 내부공간을 보면, 단위 학급교실과 이에 면한 오픈스페이스 그리고 다목적실, 특별교실, 기타 지원시설 등이 있다.

열린 교실 내부의 학습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책상배치공간, 교구가 배치되지 않은 빈 공간, 특정목적의 코너학습을 위한 공간, 교사의 교수용 기기나 사물함 및 자료대 비치공간이 그것이다.

1) 책상배치공간

교과학습이 가장 많이 진행되는 학습공간이며 가장 큰 면적이다. 여기에는 아동들이 앉을 수 있는 개인용 책상이나 원형 사각형, 사다리 모양 등의 다인용(多人用)책상이 배치된다. 이러한 다인용 책상의 경우는 교실에 따라서 다목적화하여 가끔 코너학습 활동용으로 겸용하는 경우도 있다.

2) 교구가 배치되지 않은 빈 공간

바닥 면을 넓게 사용하는 작업이나 아동들을 한 곳에 집합시키기 위한 장소이다. 이곳에는 대부분 카페트가 깔려 러그미팅 장소로 활용하는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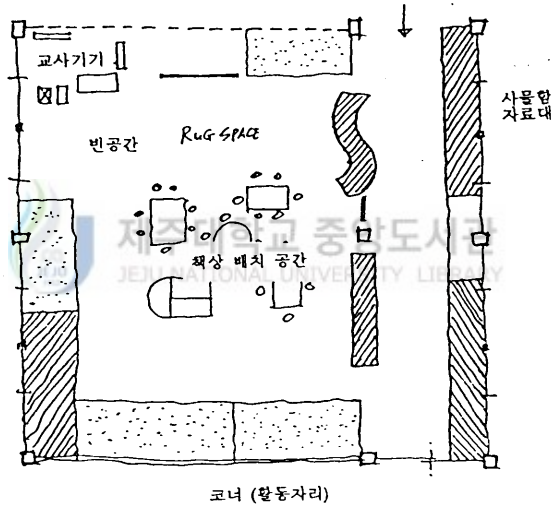
중이 크다.

3) 특정목적의 코너학습을 위한 공간

특정목적에 의한 다양한 교구의 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곳은 적극적인 코너학습을 위한 공간으로서 자료대와 코너테이블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다. 그러나 학습공간이 협소한 이유로 인해 교수-학습용 자료나 기기 등을 배치하면서도 활동자리로 마련치 못하는 경우도 많다.

4) 교사의 교수용 기기나 사물함 및 설비공간

일반적으로 교수용 기기나 준비물은 칠판이나 스크린, 교사코너와 근접 배치되고 있다. 교수용 기기는 시청각기기·교수자료상·칠판과 소철판·스크린·오르간·상담용 탁자와 의자 등이 있다.



도Ⅲ-4-1. 학급단위교실 공간구성도

나. 열린교실의 코너

일제식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과는 달리 열린교육을 하고 있는 교실에서는 학습활동 목적에 부합되는 다양한 종류의 크고 작은 코너가 설정된다.

열린교육을 위한 열린교실 내부의 학습 공간 중에는 코너가 갖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처럼 학급단위교실 안에서 열린교육을 하는 상황에서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고정코너 배치가 어려워

코너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코너의 수는 학급당 학생수와 관련이 있다.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어느 만큼의 어떤 종류의 코너가 설치되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上野 順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오픈스페이스 내에서 일반적으로 도서코너·학습지코너·시청각기기코너·컴퓨터코너·교과단원코너·게시 및 전시코너·교사코너·교재 및 교구코너·사물함코너·라운지코너 등 대략 10종류의 코너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열린 교육을 하는 학급에 설치된 코너수는 교실에 3.2개, 복도공간 0.4개로서 평균3.6개소가 배치되어 있으며 코너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표Ⅲ-4-1에 보여지듯이 신문코너·라디오코너·생물관찰코너·컴퓨터코너·서예코너 등 40여가지가 있다. 이러한 코너는 고학년·저학년·학습내용에 따라 달리 선택 구성되고 있다²³⁾.

다. 열린교실의 코너구성

열린교실 학습내용 구성을 위한 코너는 학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학습활동코너를 크게 양분하면 적극적 학습활동자리와 소극적 학습활동자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적극적 학습활동자리는 그룹학습 활동이 가능한 자리로서 다른 그룹과 별도로 독립되어 학습활동이 전개되는 코너를 말하며, 소극적 학습활동자리는 교수·학습을 위한 각종 설비나 기구·기기·사물함·자료함등이 배치되는 일종의 학습지원 기능의 코너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적극적 코너로서의 학습활동자리는 독서코너·듣기코너·관찰코너·놀이·만들기 코너 등의 순으로 설치되어 있고, 소극적 코너는 자료진열대·사물함·교사집기·시청각기기·진열전시게시판·컴퓨터·복사·기타 물공간 등이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코너의 성격은 고정적인 코너와 임시적인 코너로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독서코너·교사코너·놀이코너·사물함코너·신발장코너·컴퓨터코너·시청각기기코너·학습지 보관코너·물(음수 및 개수)코너 등은 전자에 속하고 학습결과 체크코너·학습안내코너·학습자료코너·게시 및

23) 정관영, 최효승, 류호섭, "열린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시설의 건축계획적 연구: 교육 방법 및 공간구성의 실체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3권 제12호 통권110호, 1997.12 pp.106-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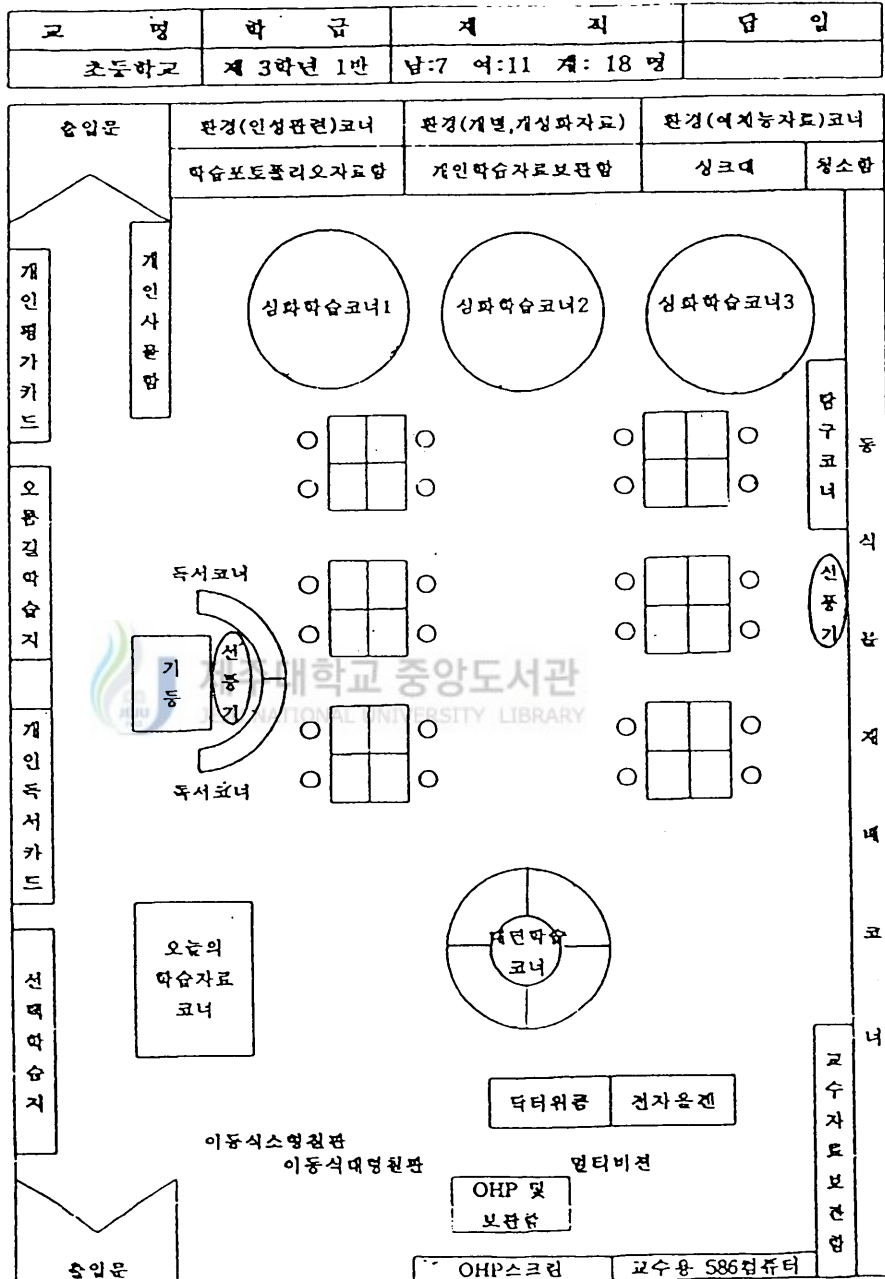
전시코너 등은 후자의 범주에 든다. 그리고 학생 이용측면에서 보면 개별적 이용코너와 그룹 또는 학습집단 전부를 대상으로 한 코너로 구별할 수도 있다. 또는 코너이용의 대상을 학생과 교사로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상적으로 코너의 수와 단위교실 면적과의 관계는 비례된다. 바꿔 말하면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일수록 상대적으로 공간이 크므로 코너수가 많으며 여유공간을 크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여유공간이 모자라므로 상대적으로 코너와 학습설비기구·기기 배치자리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표Ⅲ-4-3에 나타난 것처럼 제주지역 초등학교 교실에 배치된 코너수는 학급당 학생수에 비례하여 달라지고는 있으나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으며, 도시에서의 과밀학급을 제외한 농·어촌 읍·면지역의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하에서는 대체적으로 코너수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초등학교에서 학급단위교실 안(복도확장공간 포함)의 코너 배치의 예는 도Ⅲ-4-2와 같다.

표Ⅲ-4-1.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나타나는 코너의 종류

학 습 지	상답코너	일기관찰	리듬학습
컴 퓨 터	그 리 기	계속관찰	악기연주
인 터 넷	서 예	과학상식	시창학습
T · V	만 들 기	글 짓 기	창작활동
신 문	꾸 미 기	녹음학습	국악활동
라 디 오	독 서	들 기	도 형
자 료	장기바둑	말 하 기	연 산
생물관찰	블록쌓기	한자다지기	전 산
과학자료	놀 이	신문활용학습	실험실습
브레인스토밍	사전활용		



도III-4-2. 코너배치도 (實例)

표 Ⅲ-4-2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실에서 평균 14개소 정도의 코너가 설정되어 있다. 적극적인 코너학습이 가능한 학습자리는 그 중 평균 4개소로서 전국평균치 보다는 많은 편이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코너영역에 비하면 충분치 못함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주로 학급단위 교실 안에서 열린학습이 전개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선진외국의 경우는 학생수가 적고 실공간이 클 뿐 아니라 코너배치가 교실단위 공간 외에 별도의 오픈스페이스에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활동영역이 많이 구획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선진외국의 열린 학습공간에서 구성된 각종 코너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코너의 숫적 충족도 필요하지만 현실에 적합한 적정수와 필요 활동 내용의 범위 안에서 적극적 코너활동 영역에 대한 구획이나 증점배치가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공간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일선 현장에서 활동자리로서의 코너가 갖는 비중은 교수-학습형태에 따라 이용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교사의 역량에 따라 활용가치가 달리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Ⅲ-4-2. 제주지역학교의 학급규모별 코너수

단위: 개소

학 교	학급당 학생수	코 너 수		비 고
		적극적 코너	소극적 코너	
Jc	10~15	5	12	
Yp	16~20	4	10	
Sh	21~26	4	10	
Jp	26~30	4	9	
Hd	30~35	3	9	
평 균	21.8	4	10	

라. 열린教育用 器機 配置

열린학습 공간에 배치되는 교수-학습용 기기들은 예전의 교실에서와는 달리 많은 종류가 있다.

최근에는 정보화에 대한 사회적 운동이 교육분야에도 활발히 전개되어 21세기를 겨냥한 새로운 교육이 지향되고 있으며 정보 기술이 발달로 인

해 각종 매체가 전자화 되어가고 특히 컴퓨터가 실생활에 응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우리 교육은 다가온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그 결과 컴퓨터는 각각의 정보매체를 통합 이용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이고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 멀티미디어 수업의 현장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사와 학생이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Ⅳ장 濟州地域 열린교육 施設의

展開現況과 오픈화 手法

1. 濟州地域 初等學校 概況

제주지역 초등학교 열린교육 시설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지역 초등학교 현황을 전국과 대비한 조건이 표Ⅳ-1-1이다.

표Ⅳ-1-1. 제주지역 초등학교 전국대비 조건표²⁴⁾

구분	단위	전국	제주지역
학교수	교	5,688	106(1.86%)
학급수	학급	110,021	1,382(1.26%)
학생수	명	3,834,561	42,435(1.11%)

※ ()는 전국에 대한 제주지역의 백분율임

제주지역의 초등학교수는 대략 전국의 2%에 미달하고 학급수와 학생수는 각각 전국의 1%를 조금 상회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을 비교한 학교 개황은 표Ⅳ-1-2에서 보여주고 있다. 도시지역 초등학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재학교로서 40여개교에 871학급, 23,769명의 학생수이며, 읍·면지역 초등학교는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지역 초등학교로서 64개교에 511학급, 11,250명의 학생수를 보여주고 있다.

24)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1998년도 '교육통계편람'을 정리하였음.

표IV-1-2. 제주지역 초등학교 개황²⁵⁾

구분	단위	시지역	읍면지역	계
학교수	교	42	64	106
학급수	학급	871	511	1,382
학생수	명	23,769	11,256	35,025

※ 학교수 및 학급수는 분교장수 미포함

2. 濟州地域 初等學校 열린교실의 展開現況

1990년대는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대한 일대 변혁의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화, 개방화 그리고 정보화를 겨냥한 21세기 비전을 실천화하기 위해 1992년부터 시작된 각 시도 현대화시범학교 설립계획, 1996년부터 특별법으로 시행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은 열린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에의 요구와 맞물려 추진됨으로써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실의 대다수가 획일화된 일자식(一字式)표준 설계도에 의해 건축되어져 일제학습에 대응된 형태임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형편에 맞도록 열린교육의 교수-학습에 적합한 공간을 구성해야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제 열린 공간 구성을 위한 움직임은 시작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급속화되고 있다. 이 또한 현장에서 체험하는 수요자의 의견수렴과 열린교육을 위한 적합한 공간구성 방식의 연구가 미비된 채로 확산되어, 열린 학습공간은 단지 '열어놓음으로써 열린다'는 의미에서 다분히 관념적인 구성에 치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과정의 한편에서는 이 또한 어찌면 공간의 획일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도 하다. 따라서 열린교육의 환경에 대해서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자세로 열린 공간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노력이 필요하겠다.

전국의 어느 교육청보다도 그 확산 속도가 빠르고 심화된 제주의 초등학교 열린교육은 1994년 조천초등학교의 '열린교육 연구시범학교운영'을

25) 제주도교육청이 발간한 1998년도 '제주교육통계연보'를 정리하였음.

시작으로 하여 이제는 전도 전학교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름대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열린학습을 위한 열린공간을 갖추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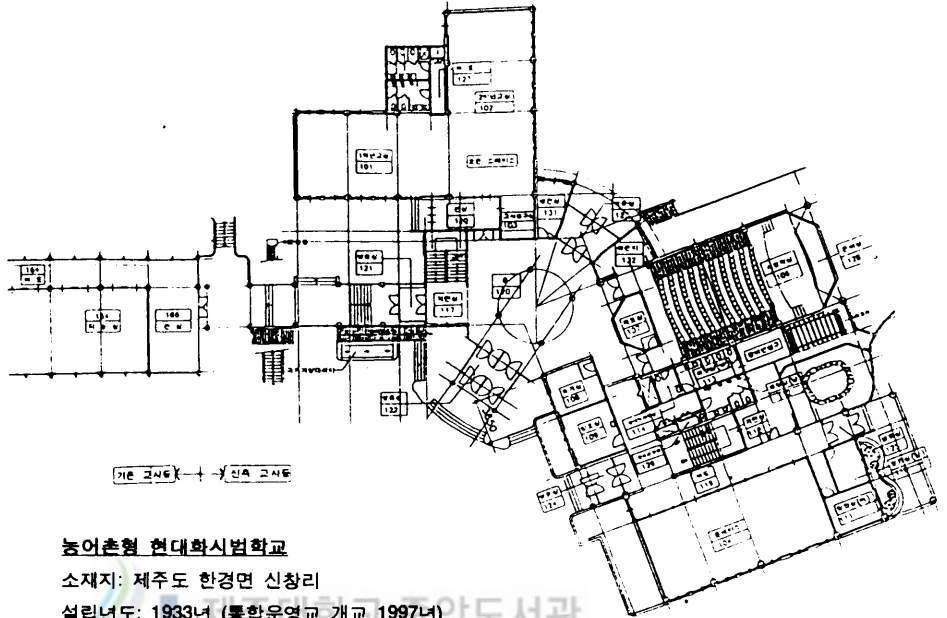
제주도 초등학교 교실의 공간 오픈화 과정을 보면, 1996년 환경개선사업 시행 당해 연도부터 열린교육에 대응하는 시설사업에 정책적 비중을 두고 교실대수선, 개축, 신·증축함으로써 급속도로 공간적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근래에 와서 교육부의 학교시설 현대화에 대한 의지가 두드러져 서울 불암초등학교를 시발로 하여 역점 정책사업으로 전개되는 '도시현대화 시범학교의 추진계획'과 농어촌 지역 교육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 추진계획' 등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는 미래교육의 변화를 수용하고 통·폐합학교 및 개축의 선도적 모델 역할을 담당하는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 건립사업으로 1998년에 신창초·중 통합학교, 1999년에 무릉초·중 통합학교가 개교되었으며, 이어서 연평초·중 통합학교가 착수되었다. 한편 도시현대화 시범학교로는 1998년에 동화초등학교가 건립되었다. 이러한 학교들은 과거의 표준화된 학교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미래교육에 대응할 학교로서 기존학교와 차별화 된 현대화학교의 표징으로 존립되어, 장래의 학교시설을 계획하는데 고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 중에서도 특히 열린교육 차원에서 비중 있게 추진되는 것은 기존교실을 열린 교실로 개조·수선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기존의 제주지역 초등학교 시설은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표준 설계도에 의해 지어졌으며, 도시·농촌 구분 없이 교실면적 67.5㎡(9.0m x 7.5m)로 획일화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학교규모나 학급당 학생수 등이 지역별·학교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수에 알맞는 공간을 구성하거나 융통성을 주기 위한 교실공간의 크기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열린교육이 도입된 것은 1994년으로서, 1986년에 운현초등학교와 영훈초등학교가 최초로 시작한 것에 비하면 8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 된다. 열린교육에 대응하는 열린 학습공간을 구성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이후부터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대수선이 해당되는 학급부터 순위적으로 단위학급교실이 열린 공간으로 개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학교시설에 대한 수리는 낡은 교실을 보수하거나 대수선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제주지역 열린학교의 평면은 도Ⅳ-2-1에서 보여주고 있다.

도IV-2-1. 제주지역 열린학교 평면도



농어촌형 현대화시범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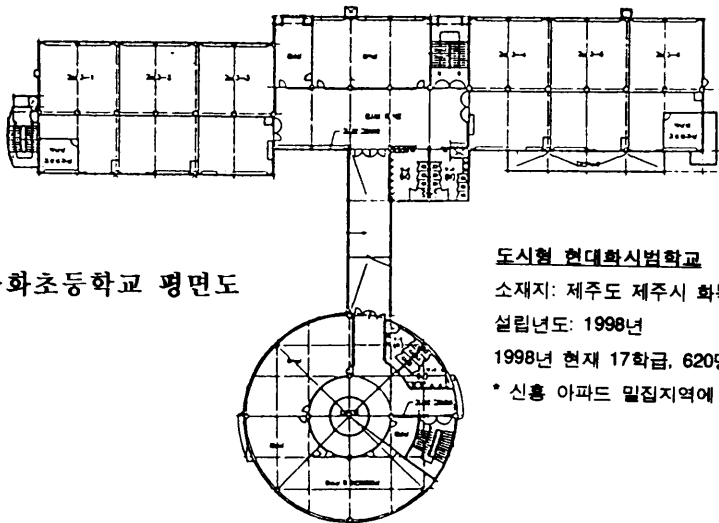
소재지: 제주도 한경면 신창리

설립년도: 1933년 (통합운영교 개교 1997년)

1998년 현재 6 학급, 학생수 116명 (초등학교)

* 1998년도 교육부주최 '전국학교시설공모' 대상수상

신창초·중통합운영학교 평면도



동화초등학교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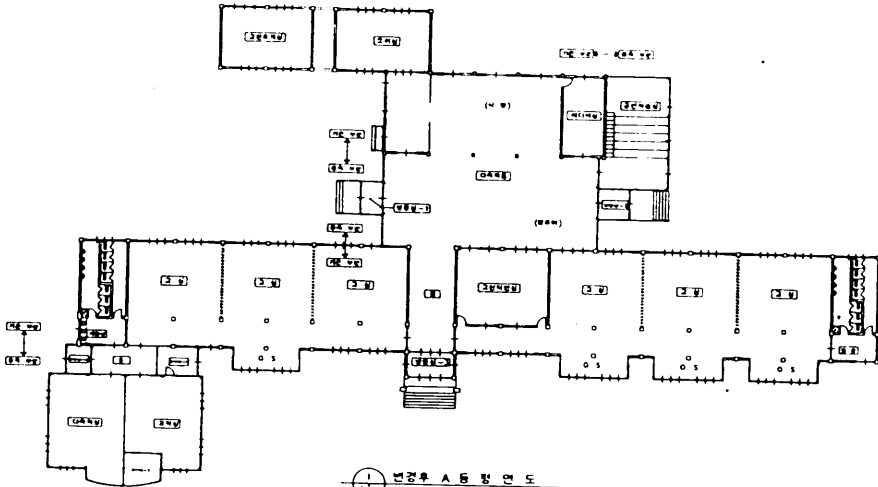
도시형 현대화시범학교

소재지: 제주도 제주시 화북동

설립년도: 1998년

1998년 현재 17학급, 620명

* 신홍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



변경후 A 등 상 면 도

종류	면적	비고
교실	1,136.00	003-0047
교사	117.00	
교장실	228.12	419, 200m ²
교직원실	30.21	
합계	1,511.33	

광령초등학교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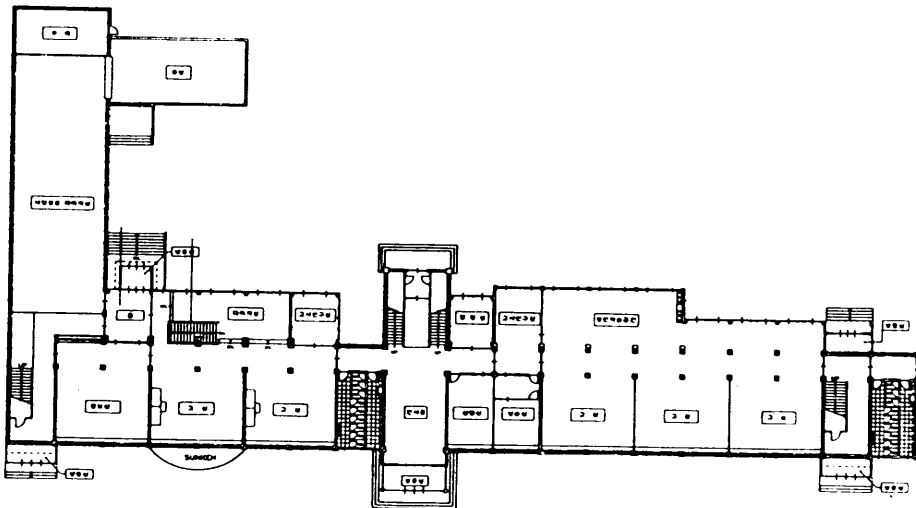
기존교실을 열린교실로 개조한 학교(농어촌 소규모학교)

소재지: 제주도 애월읍 광령리

설립년도: 1943년

학교규모: 1998년 현재 6학년, 142명

* 1999년 교육부지정 열린교육연구시범학교



신촌초등학교 평면도

기존교실을 열린교실로 개조한 학교(농어촌 중규모학교)

소재지: 제주도 초천읍 신촌리

설립년도: 1945년

학교규모: 1998년 현재 11학년, 266명

* 제주시 근교에 위치

표IV-2-1. 열린교실 현황²⁶⁾

단위:실 (학급단위 교실)

지역별	교실수	열린교실수		
		기존교실수리	신증축	소계
시지역	871	96(11.0%)	43(4.9%)	139(15.9%)
읍면지역	511	112(21.9%)	32(6.2%)	144(28.1%)
계	1,382	208(15%)	75(5.4%)	283(20.4%)

※ ()는 전체 학급수에 대한 백분율임

3. 열린교실의 오픈화 手法

우리나라의 열린교육공간 구성과정은 단위학급교실 공간의 확장에 주력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지역 초등학교에서 기존교실을 개조하여 교실을 오픈화하는 과정도 역시 학급단위 교실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복도공간을 오픈화하는 것이 그 첫 단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교실공간의 크기로 보았을 때 기존 9.0m x 7.5m 공간의 표준화된 교실 안에서는 열린교육을 위한 학습 활동장이 공간적으로 부족하여 9.0m x 2.5m의 복도마저 열어 놓음으로써, 교실에서 확장된 열린 복도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운현 및 영훈초등학교의 교실개조 사례를 모델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교실수가 다소 여유가 있는 학교에서는 학급단위교실공간의 크기를 기존의 표준화된 공간크기보다 1.5배 이상으로 확보하거나 또는 복도까지도 확장하여 학급단위교실 사이 벽을 가변칸막이로 설치하여 공간사용의 융통성을 부여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학급 단위교실 공간 안에 열린 복도를 편입하여 교실공간의 크기를 키우면서, 외부로 별도의 복도를 다시 개설하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그후에 나타나는 발전된 유형을 보면, 복도공간을 포함한 오픈스페이스를 외부로 연장하여 확보하는 것과 몇 개의 학급교실을 그룹핑하여 이에 대응하는 오픈스페이스를 만든 것, 열린 복

26) 제주도교육청 내부자료(1998년도 상반기 현재 열린 학급단위교실 현황).

도에 면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면서 추가로 별도 다목적실을 만든 것, 그러면서 다시 그룹화 된 교실공간의 오픈스페이스에서 별도의 출입구를 개설하는 것 등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전개과정은 단기간에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의 사례 중 특히,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전개방식을 우리 실정과 교육재정의 형편에 맞도록 부분 적용하는데서 보여지는 것이라 여겨진다.

4. 열린교실의 展開形態

도Ⅳ-4-1은 제주지역의 열린 교실 구성상의 유형이다.

- A형 : 기존교실형으로서 아직 열린교육을 위한 교실공간으로 개조되지 않은 형태이며, 학급단위교실과 복도 사이가 벽으로 막혀있다.
- B형 : 복도가 열려 있는 교실로 개수되는 형태의 전형이며, 열린 공간구성을 위한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많은 학교에서 우선 적용되고 있는 유형이다. 학급단위교실과 복도사이 벽을 헐어내어 교실공간의 확장을 꾀한 형태이다. 이 유형에서는 B1형태(교실과 교실사이의 벽이 고정적으로 구획된 형태)와 B2 형태(교실과 교실사이의 벽이 가변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C형 : 교실의 크기를 키우고 복도를 열어놓은 형태로서 여유교실이 있을 때 보여지는 형태이다. 학급단위교실을 기존교실의 크기보다 1.5배 이상으로 키우고 복도를 열어 놓았는데, 이 경우도 C1형태(교실과 교실 사이의 벽이 고정적으로 구획된 형태)와 C2형태(교실과 교실사이의 벽이 가변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D형 : 기존교실에서 교실과 복도 사이를 헐어내어 복도공간을 교실 안으로 흡수하여 학급단위교실의 면적을 넓히고, 출입을 위한 복도를 외부로 다시 만들어 붙여 놓은 형태이다. 이 경우도 D1형태(교실과 교실사이의 벽이 고정적으로 구획된 형태)와 D2형태(교실과 교실사이의 벽이 가변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E형 : 기존교실에서 교실과 복도 사이의 벽을 헐어내어 복도공간을 학급단위교실로 연장 확보하면서 다시 복도 외부로 섀룸(sun room)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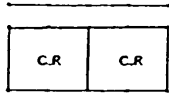
만들어 자연채광을 유입한 유형이며, 교실과 교실사이의 벽을 가변 칸막이로 구성되었다.

F형 : 기존 교실과 복도사이 벽을 헐어내어 교실공간을 넓히고 복도에 면하여 학급단위 교실군에 대응하는 다목적 공간을 확장한 유형이다. 이 유형에는 F1형태(교실과 교실 사이의 벽이 고정적으로 구획된 형태), F2형태(교실과 교실사이의 벽이 가변적인 형태) 및 F3(학급단위교실의 크기를 1.5배 이상으로 키운 형태)으로 구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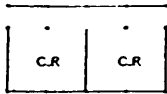
G형 : 열려있는 학급단위교실 2개를 “ㄴ”자로 배치하고 2개의 교실이 만나는 자리에 학급단위교실 크기 이상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한 형태이다.

H형 : 학년단위로 학급교실을 그룹화하고 교실크기와 비슷한 오픈스페이스를 교실에 면하여 확보한 형태로서 교실은 가변 칸막이벽으로 구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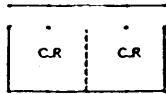
참고로 이 외에도 1999년도부터는 '기존의 출입 홀을 흡수하여 오픈스페이스를 갖추는 유형'으로서 신촌초등학교와 '기존의 식당 등 큰 공간을 흡수하면서 전교에 대응하는 오픈스페이스를 갖추는 유형'인 광령초등학교, 신축계획에서 '전교 대응의 오픈스페이스(안뜰개념)를 갖추는 유형'으로는 연평초·중 통합학교 등이 보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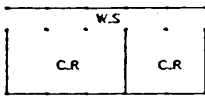
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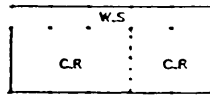
B1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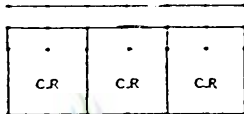
B2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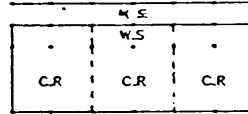
C1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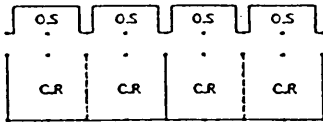
C2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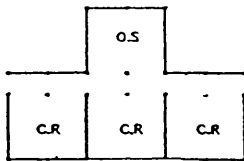
D1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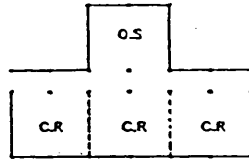
D2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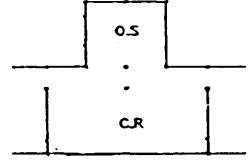
E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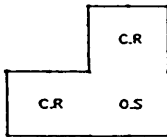
F1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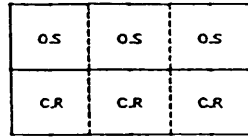
F2형



F3형








G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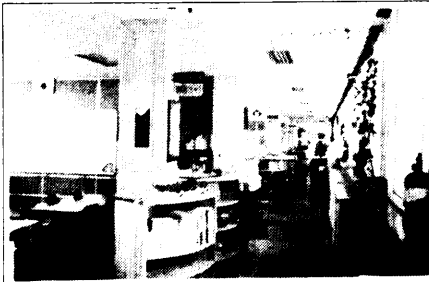


H형

도IV-4-1. 제주지역의 열린교실구성 유형

5. 學習空間의 物理的 變化에 대한 實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형태의 교실이다. · 교실공간이 폐쇄적이며 모든 학습기기는 교사 중심으로 배치되고 일제학습에 편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열린학습공간 구성을 위한 오픈화의 초기 단계에서 교실과 복도 사이벽은 헐어내어지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형태 교실의 막힌 복도이다. · 교실과 복도가 벽으로 구획되어 있어서 학급간의 교류가 없으며, 일제수업방식에 적합하도록 수업 영역이 독립적이다. · 복도는 학급교실간의 통과동선이 살아 있어 아동이동의 주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열린학습을 위해 부분적으로 학습코너를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단위교실의 크기에 비해 과밀된 학생수로 인하여 교실공간이 비좁다. · 이 정도 크기의 학습공간이라면 열린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에 공간적인 어려움을 느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공간이 크고 여유롭게 구성되어 있다. · 학급단위교실 위주로 수업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보면 이러한 크기 정도라면 학급단위교실에서도 비교적 다양한 학습활동 전개가 가능할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명 내외 정도의 학생수라면 학급단위교실의 크기에 문제가 없다. · 비교적 학습공간이 여유가 있어 코너배치가 자유로우며 학습전개하기가 수월하다.



- 복도와 교실 사이에 벽이 트여있다.
- 교사의 의식에 따라서는 트인 복도공간이 학습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여전히 좁은 공간에서 관통되는 동선처리 문제는 오픈화의 첫 단계에서 우선 해결해야될 사항이다.



- 복도공간을 오픈하여 학급단위교실로 편입하고 다시 외부로 복도를 붙여 증축하였다. 이 유형은 도시과밀학급에서 학급단위교실을 확장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학급단위교실간에 벽으로 폐쇄되어 학급별로 수업이 독립운영됨으로서 오픈화의 장점을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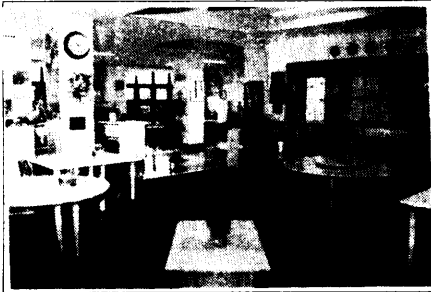
- 복도가 오픈되고 외부로 Sun Room이 연결 증축되었다.
- Sun Room이 주는 장점으로 인하여 식물 재배코너가 적극 구성되고 아동의 휴게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열린복도에 면하여 Open Space가 연결 증축되었다.
- 학급단위교실을 벗어나 다양한 학습활동이 전개되고, 아동이동의 자유로움으로 인하여 협력수업이 가능하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 복도가 열리고 3개학급에 대응하는 Open Space가 구성되었다.
- 이 곳에서는 학급단위교실에서 전개되기 어려운 다양한 학습활동이 다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대부분이 비닐썬트로 바닥 마감되어 있어 바닥 오손이 우려되는 학습활동도 이 곳에서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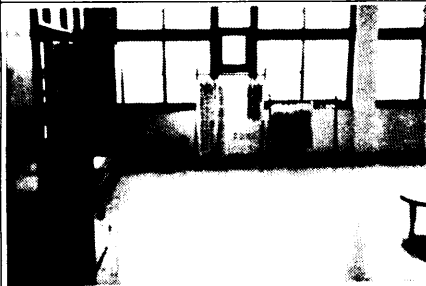
- 학급단위교실과 복도, 복도와 다목적 Open Space가 자유롭게 연계되어 아동들이 이용하는데 편의하도록 구성되어있다.
- 카페트가 깔린 교실, 비닐시트가 깔린 Open Space, 다양한 코너, 교실공간에 대한 학생수의 적정성 등으로 학습집단조직과 운영이 자유롭다.



- 두개의 학급단위교실이 균등한 조건으로 공간이용되고 Open Space가 공유되어 활용되도록 'L'자로 교실배치 되었다.
- 이 곳에서는 아동이동 동선의 문제가 없으며 협력수업에 수시로 대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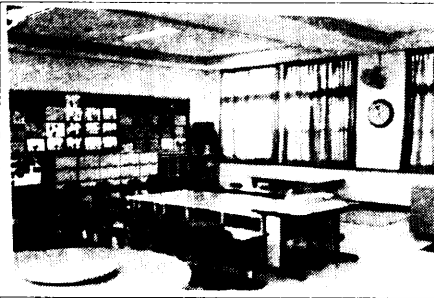
- 복도가 열리고 부분적으로 다소 크기가 만족되는 Open Space가 구성되어 있다.
- 이 곳에는 도서코너·게시코너·다목적 테이블 등이 배치되어 여러 가지 학습활동에 대응하고 있다.



- Open Space가 확보됨에 따라 학급단위교실에서 전개하기가 어려운 학습활동에 대한 공간적 제약이 해소되어 졌다.
- 넓은 공간과 비닐시트의 실바닥에서는 서예활동도 불편없이 전개할 수 있다.



- 기존의 일자형 교실동과 후면 식당 사이 공간을 덮어, 식당을 흡수하면서 4교실크기 이상의 대규모 다목적 홀이 구성되었다
- 이 곳에서는 학년집단의 통합이 유도되며 학년에 구애됨 없도록 다목적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학습공간의 오픈화 단계가 비교적 발전되어 졌다.



- 다목적실에서는 학급단위교실이 오픈화됨으로 인하여 옆교실에 방해되는 학습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 대개 소음발생·큰 움직임·발표·미술·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비닐시트가 깔린 Open Space에서는 그림·만들기·놀이 등의 학습활동도 전개된다.



- 학급단위공간이 오픈화되면서 학습공간의 범위는 확대되어, 학급단위교실에 국한되지 않고 출입구 출까지도 서슴없이 학습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 학급단위교실과 고정화된 과학실·컴퓨터실외에 별다른 공간이 없는 학교에서는 진흙 만들기 등 바닥 더럽힘이 우려되는 학습활동은 실공간에서 학습되기 어렵다.



- 기존교실에 연결되어 열린학습공간의 확장을 필요로 하는 일자·편복도형의 학교에서는 대부분 길이보다는 폭(Y축)으로 증축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자배치 학교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다.
- 향후의 좀 더 발전된 오픈화 단계에서 공간적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공간계획시 부지활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6. 濟州地域 열린교실의 形態別 空間分析

표IV-6-1은 열린학습을 위해 학급단위교실이 오픈되어 학습공간이 구성된 유형에 대한 현황이다. 초등학교 교과운영이 열린교육으로 방향설정된 7차 교육과정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2000을 목전에 두고, 열린교육에 대응하는 학습공간구성을 위해 국가의 정책적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교육에서의 획일화된 일제식 수업에 적합하도록 지어진 일자·편복도형의 기존 교실은 열린교육의 다양한 학습전개를 위한 공간구성에 제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표IV-6-1. 제주지역 열린교실의 오픈화 유형별 현황²⁷⁾

단위: 실

유형	시지역	읍면지역	계	비고
B	59(20.8%)	88(31.1%)	147(51.9%)	A형은 기존교실 유형임
C	17(6.0%)	2(0.7%)	19(6.7%)	
D	40(14.1%)	16(5.7%)	56(19.8%)	
E		11(3.9%)	11(3.9%)	
F	3(1.1%)	21(7.4%)	24(8.5%)	
G		6(2.1%)	6(2.1%)	
H	20(7.1%)		20(7.1%)	
계	139(49.1%)	144(50.9%)	283(100%)	

* ()는 전체 유형수에 대한 백분율임

더욱이 대다수 도시지역에서 보여지는 과대학교의 과밀된 학급의 학생 수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와 달리 열린교육이 시작된 이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27) 제주지역 초등학교 열린교실의 오픈화 유형은 학교 배치도와 평면도를 분석하여 분류하였으며, 그 타입이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병행하였음.

열린 학습공간 유형 중 A형은 기존교실형이며 교실과 복도사이 벽이 존재되어 공간 트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서, 제주지역 초등학교의 79%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유형에서는 실공간의 크기·재료적 건축구성 등이 기존형태로 남아있어 열린교육을 위한 교실환경 변화가 미미하다. 그러나 교실바닥에 러그형 카페트가 부분적으로 깔리어 열린학습을 위한 최소의 건축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교사의 열린교육에 대한 의지와 학습공간 구성에 대한 노력으로 복도 공간을 활용하는 등 나름대로 열린 학습이 전개되고 있다.

B형은 기존교실과 복도사이 벽을 헐어내어 학급단위 교실의 공간확장을 꾀한 가장 보편화된 유형이다. 교실공간을 오픈화하는 과정은 기존 교실을 리노베이션하는 경우와 신·증축하는 경우로 보여지고 있다. 이 유형은 기존의 학급교실을 열린학습 공간으로 구성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전체 열린교실의 55.9%에 해당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재정이 열악하여 학급당 학생수, 복도 출입동선 등과 무관하게 복도가 오픈화됨으로써 열린 학습활동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열린복도 공간에 대해서는 제V장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오픈되어진 복도공간이 학급단위교실에 유입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곳에 기존의 통로역할이 주된 기능으로 상존함으로써, 코너 등을 배치하여 학습공간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열린복도 공간의 바닥재는 교실공간과 동일하게 카페트로 간 경우와 비닐시트나 PVC타일 종류로 마감한 경우가 보여지는데, 전자의 경우는 교실과 열린복도가 카페트로 동일하게 바닥 마감되어 교실공간이 연장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별도로 복도에 면하여 확장된 오픈스페이스나 다목적실 등이 없는 경우에는, 바닥 더럽힘이 우려되는 학습활동이 기피되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교실과 복도의 바닥 마감재료가 카페트와 비닐시트나 PVC타일 종류 등으로 구분되어 복도의 기능이 강조된 시각적 느낌은 있으나, 바닥 오손이 우려되는 학습활동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로기능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복도 바닥재의 유지관리 등에 유리하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 유형에서는 기존의 일자형 편복도 교실에서 확장공간으로써의 교실에 연장된 복도가 가질 수밖에 없는 아동 이동 동선문제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열린 학습활동을 전개하는데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제 V 장에 조사된 바에 의해서도 열린 복도공간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점으로 교실출입 동선을 들고 있는 것은 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학교는 일도초등학교, 서귀서초등학교, 태흥초등학교, 조천초등학교 등이 있다.

C형은 기존교실의 복도를 트면서 옆으로 학급단위 크기를 기존교실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키운 형태로서 전체의 6.7%가 이에 해당된다. 이 형태는 기존학교에서 여유교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는 학급당 학생수에 문제가 없기때문에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고, 학급당 학생수가 과밀된 도시지역의 경우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유교실 부족으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더욱 어려운 유형이다. 이 형태는 향후 도시학교가 공동화되어 여유교실이 생겼을 때 쉽게 전개될 수 있는 형태라 생각되며, 이 유형에서는 학급단위 교실공간의 크기가 커져서 열린학습이 수월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공간 구성하는데 유리하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학교로는 한천초등학교를 들 수 있다.

D형은 기존교실과 복도교실 사이 벽을 헐어내고 기존복도 밖으로 별도의 복도를 붙여 증축함으로써, 학급단위교실의 크기를 키울 뿐 아니라 독립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유형은 부족한 학급교실의 면적을 넓혀서 과밀된 학생수의 학급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되며, 열린교실 전체의 19.8%로서 도시지역학교에서 적용되어 있다. 수업에서 우선 옆 교실에 방해가 되고 않는다는 장점은 있으나 결국, 종전의 '폐쇄(close)'된 학급단위교실 공간의 크기만 키워진다.

전통적 교육방식에 잔존되어 있는 열린교육 도입단계인 지금의 시각에서, 교사가 수업에서 담당할 수 있는 적정 학생수의 문제를 미루어 두고서라도, 과밀된 학급당 학생수를 적정화시켜 공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 형태는 이러한 배경에서 기존학습공간이 확장되었다는 점이 교사의 만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유형에서는 학급단위교실 간에 공간적으로 오픈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복수학급에서의 협력학습'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열린 학습공간의 오픈화로 인해 보여질 여러 가지 장점 등이 고려되지 않는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학교로는 제주중앙초등학교와 강정초등학교 그리고 대정초등학교가 있다.

E형은 기존교실과 복도사이 벽을 헐어내어 학급단위 교실로 복도공간

을 유입시키고 복도공간의 깊이를 더하여 늘려 확장됨으로써, 기존의 복도가 갖고 있는 동선문제에 다소 대처된 유형이다. 이 유형은 농어촌지역의 표준도 학교에서 적용된 유형이며, 복도창의 외부 수평차양을 이용하여 밖으로 연장 돌출된 선룸이 구성되었다. 이는 좁은 복도공간의 확장을 피하고자하는 의도와 더불어 선룸이 갖고 있는 장점이 활용됨으로써 식물재배 관찰코너가 구성되고, 아동의 생활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제주지역 열린교실 추진물량의 3.9%에 해당된다. 학급단위 교실의 크기에 별 문제가 없는 소규모 농어촌학교에서 적용되어 활용되었을 때, 오픈스페이스의 이용가치가 확인될 수 있는 유형이다. 대표적인 학교로는 광령초등학교와 하도초등학교를 들 수 있다.

F형은 열린 복도공간 외에 대개의 경우 3교실에 대응한 교실크기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한 유형으로서, 복도공간에서 해결하지 못한 오픈스페이스의 공간적 크기와 다목적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전학급 교실에 대응되는 교실크기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질충방식'으로 전개되는 공간유형이라 볼 수 있다. 전체의 8.5%가 이에 해당된다. 학급당 인원이 과밀된 도시지역 학교에서보다는 거의가 농어촌 소규모학교에서 채용됨으로서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크기의 적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제주도 농어촌지역의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22명임을 감안할 때 그 크기가 공간적으로 비교적 무리 없이 대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곳의 바닥은 비닐시트나 PVC타일 종류로 마감되어 있어 특히, 바닥손이 우려되어 학급단위 교실에서 학습하기가 곤란한 그리기·만들기·놀이·간단한 율동 등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비교적 교실간·학급간의 이동이 자유로워 협력학습이 가능하고 팀티칭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학교로는 재룡초등학교와 고산초등학교 그리고 하귀초등학교 등을 들 수 있다.

G형에서는 오픈스페이스 안에 고정된 동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실공간이 'ㄴ자'로 배치된 이 유형은 방향이 꺾이는 두 개의 교실을 오픈스페이스에 접합 구성함으로써, 오픈스페이스에서 발생하는 수업소음과 시선에 의한 수업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경우 오픈스페이스에서는 두 개 학급이 동일한 조건으로 학습공간을 구성할 수 있으며 독서·만들기·놀이·물공간 등의 고정코너를 공유하고 협력학습 팀티칭이 전제되어 공간활용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 유형은 농어촌 현대화시범학교인 신창

초·중 병설학교에서 보여주고 있다.

H형은 학급단위교실에 붙여 교실크기 정도의 오픈스페이스가 연속적으로 구성된 유형이다. 학급교실을 학년단위로 3교실씩 그룹화하여 학급에 대응하도록 구성된 오픈스페이스는 학급간의 이동이 자유로워 여러 형태의 열린학습 전개가 가능하다. 그리고 학급단위교실간에 이동 간막이가 구획되어 공간의 융통성이 보여지고 있다. 이 유형의 대표적 학교는 동화초등학교가 있다.

제주지역에서 열린교육에 대응하는 시설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도로서 불과 4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현장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일제·획일식 교육으로 통칭되는 전통교육의 틀에 초점이 맞추어져, 통제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건축되어진 종래의 일자·편복도형 학교교실이 갖고 있는 공간적 불리함을 감수하면서, 열린 학습전개를 위한 학습공간을 오픈화 시키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다.

열린교육을 위해 오픈화 된 학습공간의 형태는 이 시대의 교육현실이 만들어 놓은 사회·문화적 토양 속에서 가시화 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실체가 되어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열린 학습공간 구성을 위한 교실의 오픈화 과정은 열린교육의 초기 단계인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 것은 이를 통하여 미래지향의 열린 학습공간을 구성하는데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속히 전개되는 제주지역 초등학교 교실의 오픈화 유형을 찾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한다는 것은 미래교육에 대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제주지역 초등학교의 열린 학습전개를 위한 교실의 오픈화 현상은 기존 교실형인 A형을 제외했을 때 B형에서 H형까지 7가지 유형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오픈화하는 일련의 과정은 유형에 상관없이 대개가 원칙적으로 학급단위교실의 범위를 고정화하면서 밖으로 부족된 교실공간의 확장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것은 열린교육에서 다양한 학습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제1단계로 보여지는 '교실의 확대 사용의지'가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학급교실과 과학실·컴퓨터실을 가지고 전교과가 운영되는 현재의 열악한 시설보유

상태로서는 다양하게 열린학습을 전개할 수 있는 여유교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열린교육 초기 단계에서 학급단위교실을 중심으로 공간 확장하고자 복도를 오픈화하는 과정은, 열린교육에 대응하는 공간구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첫 단계라 하겠다.

열린교육의 성공을 위한 시설의 변화는 기초적이고 단계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기존교실을 중심으로 복도가 오픈화되어가고 있는 전개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²⁸⁾.

첫째, 오픈된 복도 공간에서 아동 이동동선을 정리하는 문제이며,

둘째, 협소한 복도 공간을 통하여 학급단위교실 간에 전달되는 소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셋째, 오픈스페이스의 크기와 소음 및 바닥오손이 유발되는 학습형태가 전개될 다목적실의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열린학습 공간구성의 점차적 발전과정에서 보여질 수 있는 대규모 홀 공간의 연장 증축과 이를 위한 기존 교사대지의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첫 단계 이후에 나타나는 '복수학급이 협력해서 오픈스페이스를 사용하는 단계'와 '오픈스페이스를 학습활동의 중심장소로 하여 학급단위교실을 오히려 보조공간으로 이용되는 단계', 보다 더 '학교 전체를 학습활동의 장소로 사용하는 단계'까지도 전개될 수 있도록 오픈화가 추진되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우리실정에 맞는' 열린 교육시설의 형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8) 신설학교와 기존학교에서 신·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시설 오픈화의 발전단계가 동시 만족되도록 적용되어 학급단위에서 학년단위로, 학년단위에서 전교에 대응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와 다목적실 등이 구비되어 다양한 열린학습 전개가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V. 教室의 오픈화와 열린 學習空間에 대한 評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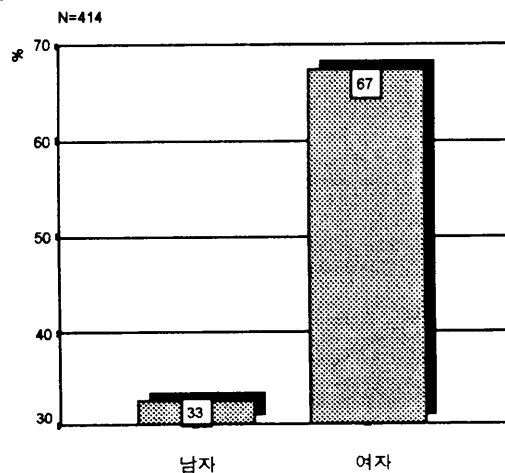
1. 調査對象의 特徵

가. 調査方法 및 期間

전국 최초로 전도에 걸쳐 교육부지정 열린교육 시범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지역 초등학교 총 106개교에 1,382학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제주도교육청 산하 시·군교육청을 통하여 초등학교에 배부하고 우편으로 접수하였으며, 조사대상은 학급을 담임하고 있는 교사로 제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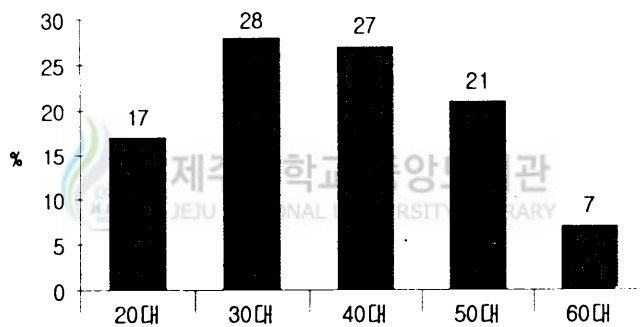
배부된 설문지는 총 560부, 회수된 설문지는 총 421부로서 75.1%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조사기간은 1998년 11월30일~12월23일까지로 하였다.

나. 調査對象者의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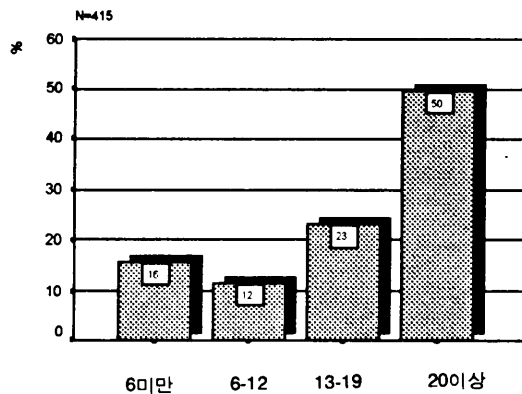


도 V-1-1. 교사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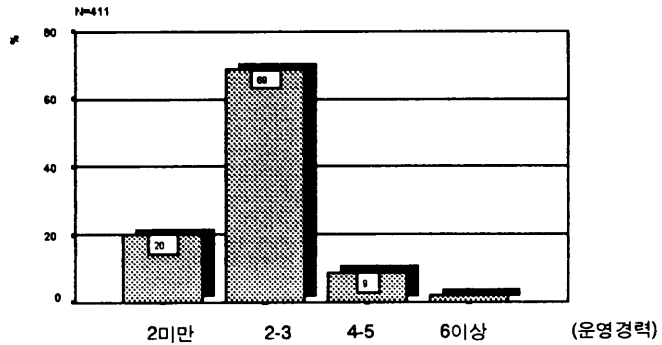
도 V-1-1~3는 조사대상자의 특징을 구분하여 나타낸 것으로 교사의 성별은 남교사 33%, 여교사 67%로 개략적 1 : 2의 구성을 보이며, 연령은 20-30대 45%, 40세 이상 55%이고, 교직경력은 12년 이하 27%, 13-19년 23%, 20년 이상 50%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30대 젊은 교사가 4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교직경력이 많은 것은 다른 직종과 달리 학교 졸업후 임용이 빠른 이유도 있겠으나, 군 병력을 풀해야하는 남자교사에 비하여 여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열린교육 운영경력은 도 V-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년 이하 69%, 4년 이상 31%으로서, 3년 미만의 운영경력이 69%인 것은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열린교육이 총체적으로 이제 시작 단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도 V-1-2. 교사의 연령 분포



도 V-1-3. 교사의 교직 경력



도 V-1-4. 열린교육 운영 경력

조사대상학교의 지역은 도시지역 학교가 53%, 읍·면지역 학교가 47%이며, 학급당 학생수는 15명 이하 5.4%, 16-25명 14.0%, 26-35명 49.3%, 46명 이상이 2.2%으로 조사되었다.

2. 열린교육 환경에 대한 教師의 意識構造



가. 열린교육 活性化에 대한 展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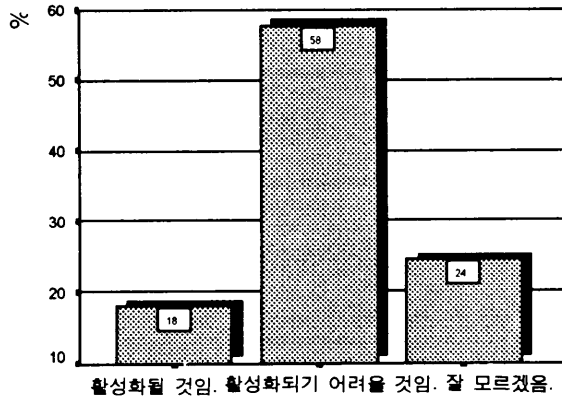
“우리나라 열린교육의 미래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도 V-2-1에서 보여주고 있다. 매우 활성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17.9%,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 응답한 교사가 57.6%, 잘 모르겠다는 교사가 24.5%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열린교육의 장래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절반 이상의 교사가 회의적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최근 열린교육의 확산 전개가 관제적(官制的)이라는 점과 도입에 있어 ‘준비가 덜 된 상태’²⁹⁾에서 확산되어지는데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작용하

29) 우리나라 열린교육에 대한 문제점

첫째, 보통교실에서 많은 학생이 학습해야 하므로 교수-학습활동이 불편하고 공간확보가 어렵다.

둘째, 개인차에 대응할 수 있는 개별학습용 자료의 부족으로 교사들의 자료개발과 제작에 따른 부담이 크다.

셋째, 열린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과 체계적인 방법 안내가 되지 못하고 있어 실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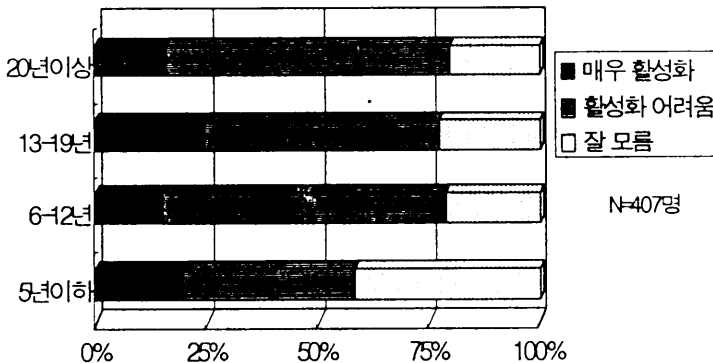


도.V-2-1 열린교육 활성화에 대한 교사의 전망

있는 것이라고 추측되어진다.

열린교육에 대한 교사의 의식구조에 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조사방법에 의해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사 경력별 열린교육 활성화에 대한 전망은 도 V-2-2 과 같다. 여기서 교사경력 6-12년의 집단과 20년 이상의 집단에서는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람이 '매우 활성화될 것'이라는 사람과 '잘 모르겠다'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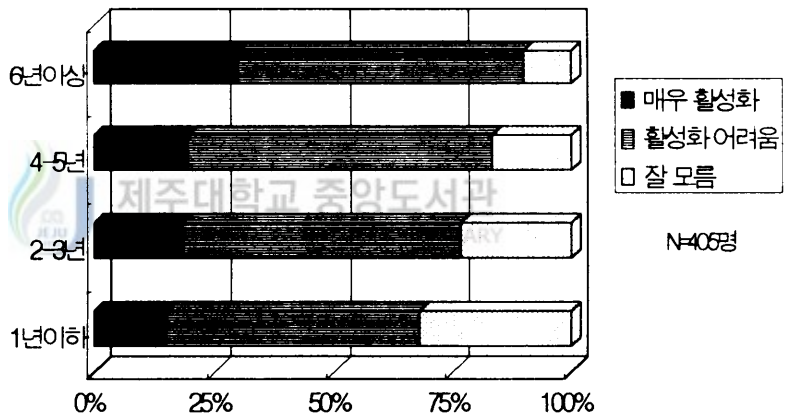


도 V-2-2. 교사경력별 열린교육 활성화에 대한 전망

빛째, 교장·교감 등 학교 경영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편으로 실천의지가 있는 교사들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내용은 "교육월보" 1996. 12월호에 게재된 특별기획 -96년도 한국교육 우수사례-인 광주시교육청의 "열린학습의 실천과 장학"에서 발췌하였음)

을 합한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6년 이상의 경우는 대개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쪽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사경력이 5년 이하의 교사들의 경우는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시각보다 잘 모르겠다는 쪽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열린교육의 초기단계이므로 열린교육 운영경력이 대체로 낮은 편이긴하지만 도 V-2-3에서 보면, 그 가운데서도 열린교육 운영경력이 많을 수록 활성화에 대한 전망이 높게 나타나고, 열린교육의 운영경력이 낮을수록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열린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교사는 대체로 열린교육 경력과 무관하게 변화되지 않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도 V-2-3. 열린교육 운영경력별 열린교육 활성화에 대한 전망

나. 열린교육의 展望에 대해 肯定的인 教師의 意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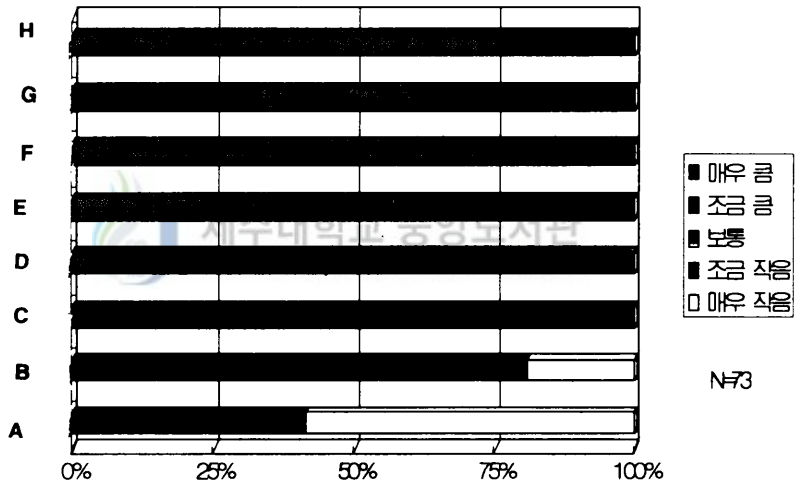
열린교육의 전망에 대하여 긍정적인 교사의 집단에서 받고 있는 '학급 교실 크기가 학생수에 비해 크다', '작은가'에 대한 질문에 교실 유형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도 V-2-4에서 보여진다.

여기서 교실과 복도 사이가 열려있는 B형의 경우는 복도가 교실에서 트여 공간이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작다는 비율이 높은 것은 열린 복도 공간이 교실 부족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한다. 학급단위교실에서 기존복도공간을 흡수하여 외부로 복도를 재차 신설한 D형의 경우는 트인 복도 공간이 학급단위교실로 전용되기 때문에 교실크기가 작게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양한 교과운영의 전개를 위한 교실공간의 크기는 오픈스페이스의 크기가 클수록 그 크기에 비례하여 만족하고 있는 편이다.

열린교육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교사들에게서 '교실유형별 열린 복도공간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본 결과는 도V-2-5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교실형인 A형에서 복도공간이 연장학습공간으로 인식되

(열린교실 구성유형)



도 V-2-4. 교실유형별 학급당학생수에 비한 교실공간의 크기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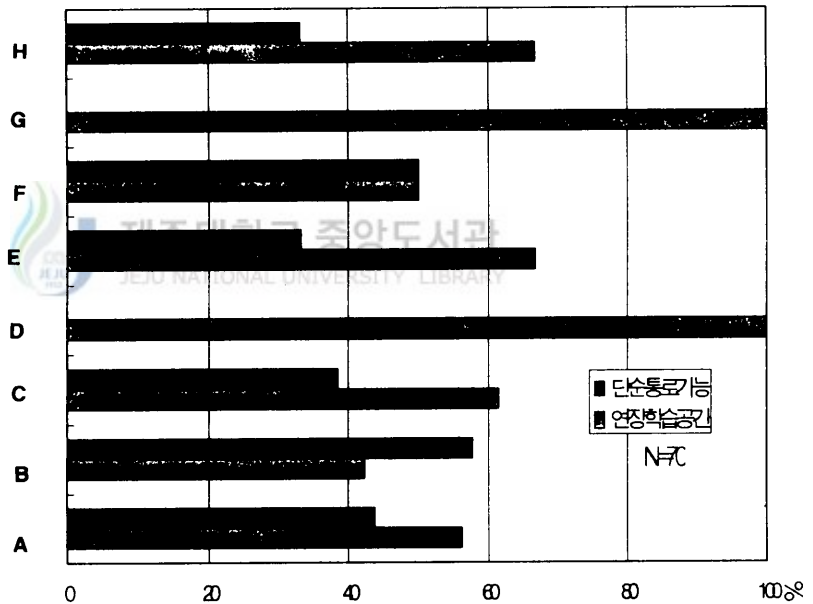
는 비율이 단순 통로기능으로 인식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것은 복도 기능상의 통행동선을 인식하면서도 '열린교육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인 교사집단'이 열린 학습에 대한 의욕이 두드러져 복도공간을 열린교육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부분 활용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반면에 교실공간에서 복도 공간을 터놓은 B형에서 열린 학습공간을 연장학습공간으로 인식하기 보다 오히려 통로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열린 복도 공간을 학습공간으로 유입하기에 건물의 구조상 적당치

않을 뿐 아니라 공간의 크기조차도 너넉치 못함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열린 복도공간의 크기를 다소 키운 유형인 C형과 H형인 경우에 복도공간을 연장학습공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통로로 인식하는 경우보다 갑절 이상 많은 것은 오픈스페이스를 학습공간화 하는데 적당한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또한, 'ㄴ'자형인 G형과 외부에 복도를 다시 달아맨 유형인 경우에는 단순통로 기능이 아닌 연장된 학습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서 외부복도형인 경우에 별도의 복도를 신설하고 기존복도공간을 교실 안으로 완전 흡수하는 것이어서 복도활용 차원에서는 논외로 한다. "ㄴ"자형인 G유형에서는 오픈스페이스

(열린교실 구성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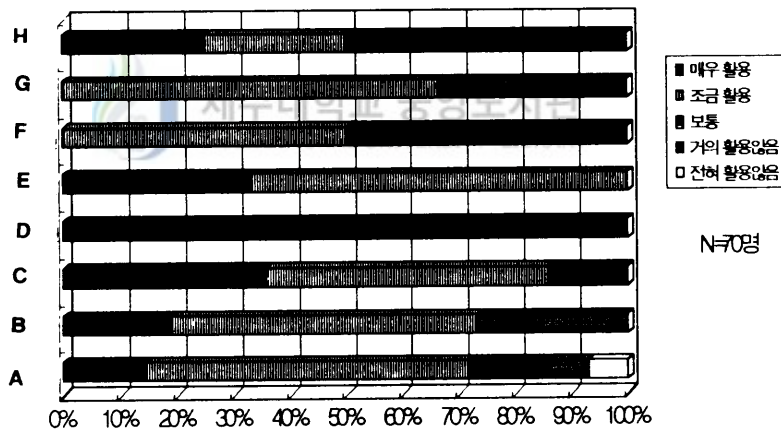
도V-2-5. 교실유형별 열린복도공간에 대한 인식

안에서 복도공간 개념이 계획적으로 편입 처리되어 공간구획이 없으므로 인하여, 학습공간 활용에 대한 통과동선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오픈스페이스의 활용에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도V-2-6은 긍정적인 교사들이 교실 유형별로 열린복도 공간을 학습활동에 얼마나 활용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외부 복도를 신설하여 붙여 놓

은 D형의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복도를 교실에 완전히 편입한 예이다. 기존교실에서 열린학습을 전개하는 A형에서는 복도가 학급단위교실로 확장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열린교육에 대한 전망의 기대치가 높은 교사들이 열린교육 학습운영에 적극적이어서 복도 공간을 학습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복도를 학습공간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단순 통로기능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비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열린공간 구성에 대한 교사의 적극적 의지가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B형을 보완하여 선룸을 연결한 C형의 경우 그 활용도는 B형에서와 달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것은 선룸의 장점과 독립성이 보장된 공간확장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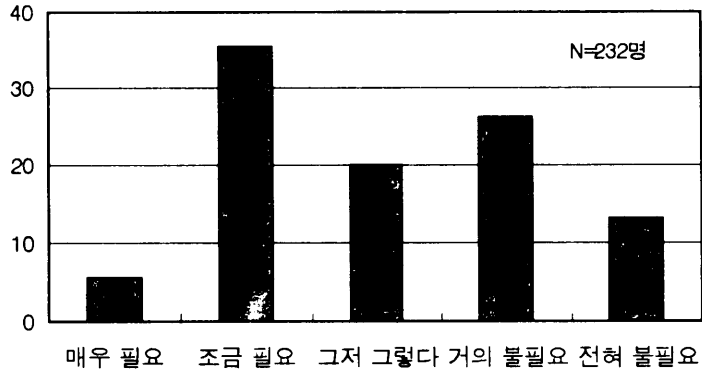
(열린교실 구성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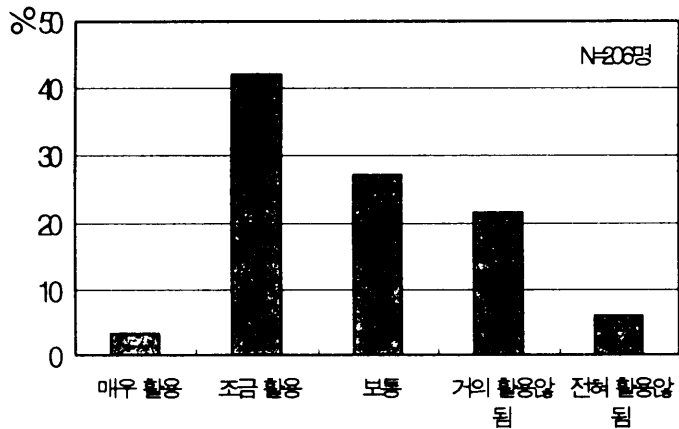
도V-2-6 교실유형별 열린복도의 학습활용도

다. 열린교육의 展望에 대해 否定的인 教師의 意識

열린교육 전망에 낙관하지 않는 교사가 기존교실을 열린공간으로 구성하는데 대한 느낌은 도V-2-7과 같다.



도V-2-7. 기존교실의 열린공간 구성에 대한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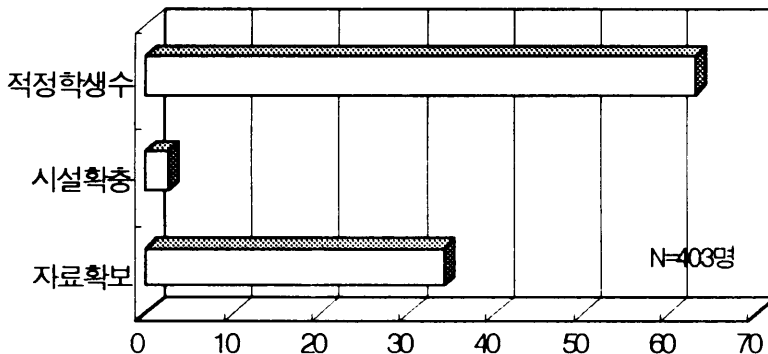


도IV-2-8 열린교육전망에 비관적인 교사가 열린공간복도를 수업에 활용하는 정도

열린교육의 전망에 비관적인 교사의 의식 조사에서 기존교실을 열린공간으로 구성하는 데에 대한 필요도는 '매우 필요하다' 6%, '조금 필요하다' 36%, '그저 그렇다' 20%, '거의 불필요하다' 26%, '전혀 필요없다' 12%로서 필요, 불필요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열린교육의 전망에 비관적인 교사들이 열린복도 공간을 열린수업에 어느 정도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도V-2-8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활용하는 교사가 45%, 활용하지 않는 교사가 28%, 보통이 27%로 보인다. 이 것은 '열린교육의 전망에 부정적인 교사의 의식'이 기존교실을 열린공간으로 구성하는데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라. 열린교육 推進上의 優先的 改善事項

열린교육 환경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도V-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는 사람이 62%, 충분한 자료확보가 33%, 시설확충이 5%로 조사되었다. 이 것은 현재 우리나라 열린교육의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으로서, 제주지역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기되고 있는 내용이다. 학급당 학생수와 학급단위교실의 크기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대개 도시지역 학교 경우에 부족한 교실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급당 적정학생수의 조정은 시급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일선에서 열린교육을 위한 시설확충에로의 열망을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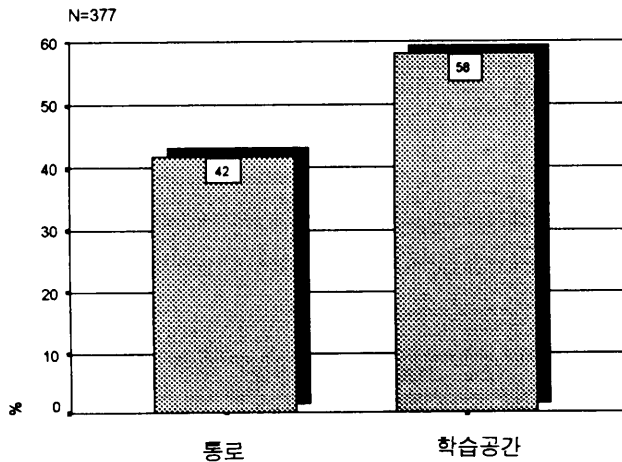
도V-2-9. 열린교육 추진상 개선할 사항

3. 열린 學習空間의 活用に 대한 評價

가. 열린 複道空間의 活用 評價

도V-3-1에서 보면 절반이상의 교사가 교실에서 트인 복도공간에 대하여 학생출입을 위한 통로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것은 기존의 일자식 학교건물에서 현관·화장실의 위치가 대부분 교실동 측면에 배치되어 있어 동선이 길어진 이유 때문이다..

열린공간 구성에서 교실과 복도 사이 벽을 없애고 복도를 교실공간으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현관·계단실·화장실 등의 위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학교와는 달리 학생수가 많은 도시학교에서 복도 출입동선이 긴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일자배치 건물에서 학급교실이 여러 개가 연속되어 이어져 있는 경우에 복도공간을 열어 놓았다고 해서 '교실공간에서 확장된 학습공간'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관이나 계단실·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학생이동 동선의 길이를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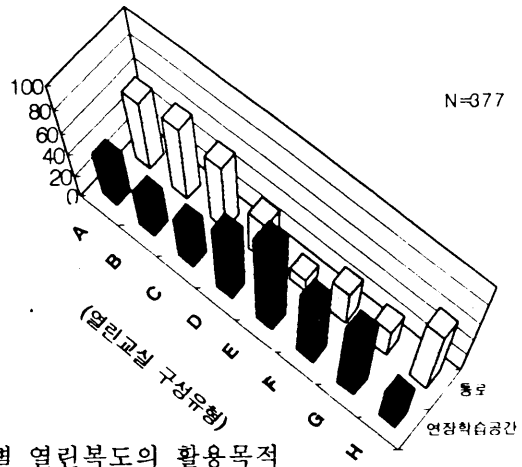
그림V-3-1. 개방복도의 활용도

일 수 있도록 실재배치 하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오픈스페이스의 증축이 고려되는 경우에는 학급단위교실에 방해를 주지 않는 위치에 현관·화장실 등의 배치와 더불어 오픈스페이스를 배치함으로써 학습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나. 教室類型別 열린 복도³⁰⁾의 活用

도V-3-2에서 교실유형별로 열린복도의 활용목적을 보면 열린복도의 크기에 의하여 활용용도가 측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현재의 기존학교 일자형교실 배치에서 복도를 터놓았을 때 출입동선이 혼재되어 공간활용의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E형, F형, G형에서는 트여진 복도의 깊이를 키워줌으로 인하여 비교적 공간활용도를 높여 연장된 학습공간으로 인식케하고 있다. 또한, H형인 경우에 연장된 학습공간이라기 보다는 커다란 통로기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열린교육 초기단계에서 학습공간에 대한 교사의 고정관념 즉, ‘담임되는 학급단위교실의 범위에서만 학습공간으로 활용하는 습성’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오픈스페이스에 교차되는 동선량(動線量)·출입구와 화장실 등의 위치에 대해 학생수와 공간크기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 V-3-2. 교실유형별 열린복도의 활용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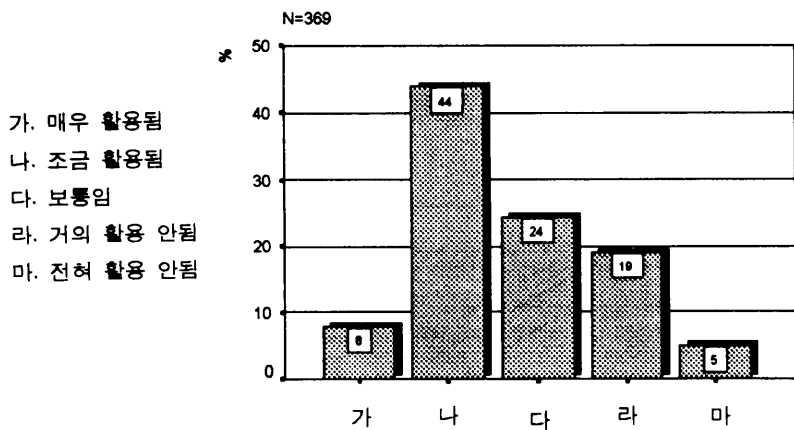
30) 조사의 편의상 복도에 면하여 확장된 오픈스페이스를 포함하였다.

다. 오픈스페이스의 要求度

도V-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린 복도공간이 수업에 활용되는 정도를 보면 52%가 활용하고 있으나, 전혀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24%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열린 복도공간을 학습공간으로 이용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교사들이 학생들이 이동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라는 응답하고 있다.

이는 교실에서 복도를 열어 놓았을 때 교실에서 넓혀진 복도공간은 시각적으로 트이고 확장되어 있으나, 동선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연장된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는 열린교육 초기단계에서 아동들이 열린공간 사용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겪는 이동소음·수업소음 등으로 인한 교사의 기피현상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단위교실 안에서 수업하기에 공간적으로 좁기 때문에 불편한 학습활동은 다음의 순서와 같이 조사되었다. 미술(그리기), 고정코너학습, 집단모듬활동, 조별활동, 역할극, 율동, 멀티미디어, 실과 실험실습 등이다. 이 것은 오픈스페이스의 공간적 요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학급에서는 책



도 V-3-3. 열린 복도공간의 활용도

결상이 배치되는 자리가 크게 차지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바닥공간이 작아지고 율동·역할극·그리기·실험 실습·멀티미디어등의 고정코너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참고로 교실공간의 확장 요구와 관련하여 학생수에 비한 학급단위교실의 크기에 대한 응답을 보면, 학급교실 크기가 학생수에 비해 작다는 비율이 56.3%로서 이것은 조사된 도시지역 학교수 56.2%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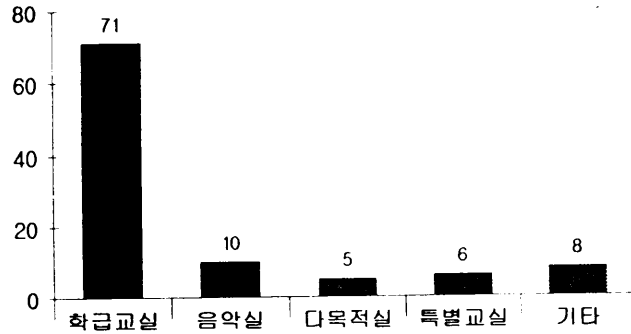
라. 多目的 空間의 必要性

열린교육의 다양화된 학습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학급단위교실 이외의 별도의 여러 학습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존교실을 열고자 준비하고 있는 학교에서나 기존교실을 열어놓은 학교에서나 학습 운영상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시설은 학급단위교실을 제외하여 과학실·컴퓨터실 정도를 특별교실로 확보하고 있다. 열린교실로 개조하기 위해 교실과 복도를 열어놓았을 때 -오픈화 전개의 필요성과 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수업에 방해되는 것이다. 특히, 음악·율동 등 수업소음이 큰 학습활동이나 율동 등의 움직임이 큰 학습활동 역시 별도의 목적교실이 없으므로 인하여 학급단위교실 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학급교실간에 수업소음 발생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V-3-4에서 보면, 학급간에 수업소음으로 방해받는 음악수업이 학급단위교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급이 전체의 70.6%이고, 음악실 10.7%, 다목적실 5.1%, 특별교실 6.1%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율동 등 움직임이 많은 학습활동 역시 '학급단위교실에서 수업된다'가 62.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급단위교실에서 대부분의 열린학습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가장 먼저 이를 위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도V-3-5에서 살펴보면, 교과운영상 학급단위교실, 과학실, 컴퓨터실 외에 별도 다목적공간이 필요하다는 교사의 수가 9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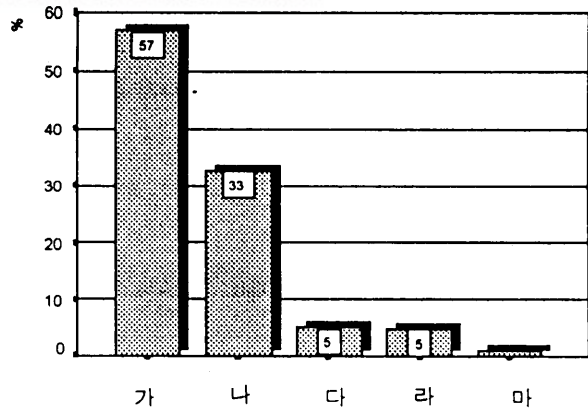
31) 참고로 1998년도 교육편람을 보면 전국 학급당 학생수가 34.9명인데 비해, 제주지역은 30.7명이다. 제주지역의 도시학교에서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5.8명이고 읍면농어촌지역은 22명이다.



도 V-3-4. 소음발생 학습의 장소



- 가. 매우 그렇다.
- 나. 조금 그렇다.
- 다. 보통이다.
- 라. 거의 그렇지 않다.
- 마. 전혀 그렇지 않다.



도 V-3-5. 다목적공간의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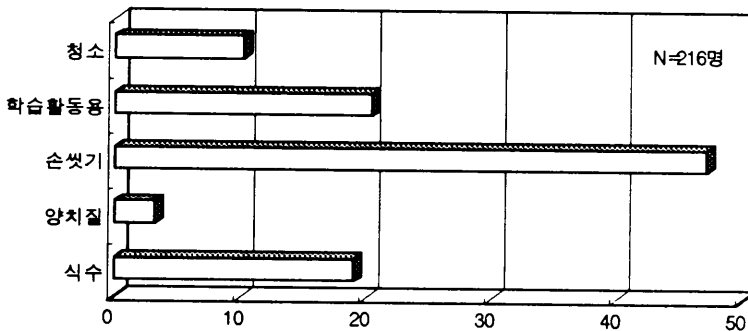
대집단 학습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큰 교실(식당, 체육관 제외)이 귀교에 있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학습활동을 전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학급교실이나 교실에 면한 오픈스페이스등에서 학습하기 곤란한 '큰 움직임·큰 소음'의 학습활동이 주가 되었는데, 순위 별로 보면

체육·운동·음악(합창 및 합주)·미술·학예발표·게임·공작·시청각 등이다.

마. 싱크대(물공간) 使用

열린교실에 설치된 물싱크의 위치는 학급단위교실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오픈스페이스가 확보된 학교에서는 오픈스페이스에 설치된 경우도 보인다.

도V-3-6에서 ‘교실이나 복도공간에 설치된 물공간³²⁾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 보았다. 그 사용되는 목적은 손씻기, 학습활동, 식수, 청소, 양치질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장조사된 바로는 대다수 교실에 설치된 물공간은 성인용 주방싱크인 이유로 아동의 신체조건을 고려치 못하고 있다. 특히 저학년에서는 싱크대의 높이와 폭에 있어 사용상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편리성이 고려되 못하고 있다. 열린 학습공간에 설치되는 물코너는 사용목적·사용빈도에 따라서 적당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학년·중학년·고학년으로 구분하여 인체조건에 맞도록 적당한 사이즈와 편리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며, 그리고 아동의 사용행태를 면밀히 판단하여 물공간의 위치와 그 크기 등이 조사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도 V-3-6. 물싱크의 활용

32) 조사된 대다수의 학교에서 가정용 기성제 싱크가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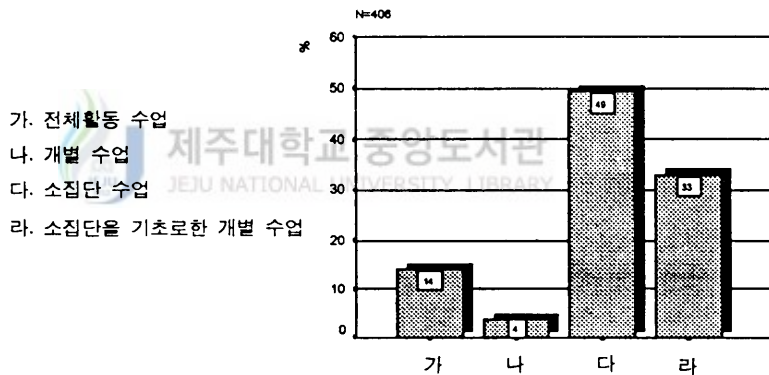
바. 열린 學習運營 形態

1) 학습활동의 조직형태

도V-3-7에서 살펴보면 열린교육 수업과정에서 가장 자주 이용되는 학습집단의 수업형태는 전체의 82%가 소집단학습 또는 소집단학습을 기초로한 개별학습이다.

아직 팀티칭이나 대규모집단의 학습형태 등은 열린교육의 운영경력이 짧아 학습경험이 부족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우선되어야 할 대단위 학습을 위한 시설환경이 미비된 것이 주된 이유라 하겠다.

팀티칭을 위해서는 교실과 교실 사이 간벽을 가변화 될 수 있으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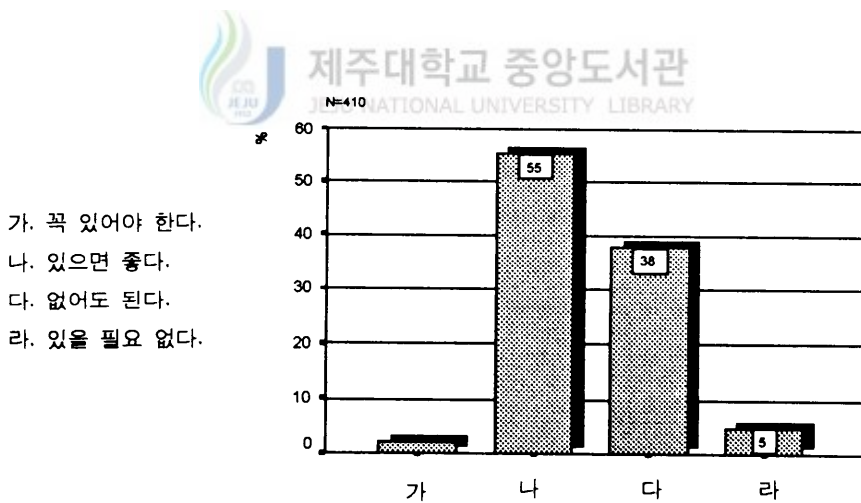
도 V-3-7. 수업에서 선호되는 학습집단 형태

2) 고정 학습코너의 필요성과 구성

도V-3-8에서 보면, ‘열린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고정 학습코너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57%가 필요하다, 43%가 필요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간에 아직도 학습단위 교실에 국한하여 학습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의 한 단면이 보여지는 현상이다. 현실적으로 학습교실 이외에 여유교실이 없는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교실공간의 부족으로 고정코너를 배치하는데에 공간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교실공간에 구성되는 코너들은 교사가 학습내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고 있는데, 도V-3-9를 보면 수업 목표에 따라 수시로 재구성하는

교실이 29%, 1년에 2-3번 구성하는 교실이 34%, 상설로 구성한다는 교실이 34%로서 전체의 1/3 교실에서 학습환경 구성을 위한 코너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간구성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대개 학습공간에서 코너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학습자료·자료대·책상 등이다. 따라서 코너의 재구성에 편의를 위해서는 교구제작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목적하는 학습내용에 적합하도록 다목적화하는 것이라든지, 운반의 용이하도록 가벼운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거나, 이동의 편의를 위해 바퀴를 설치하는 등 인체공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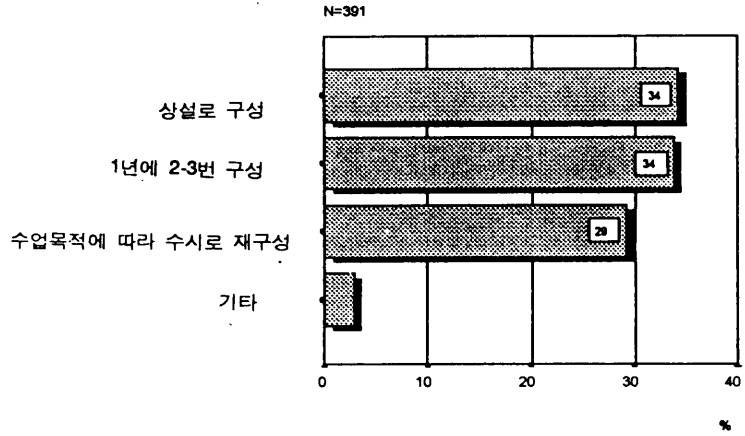
참고로, 학급교실에 배치된 '고정학습 코너'의 종류를 설치 빈도수별로 보면, 그 순서는 독서·놀이·만들기·선택학습·시청각·관찰·컴퓨터·그리기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사랑방·영어·꾸미기·탐구·기본학습·다목적코너·열린방 등이 보이는데, 교사의 학습운영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고 있다.³³⁾



도 V-3-8. 고정학습 코너의 필요성

도 V-3-8. 고정학습 코너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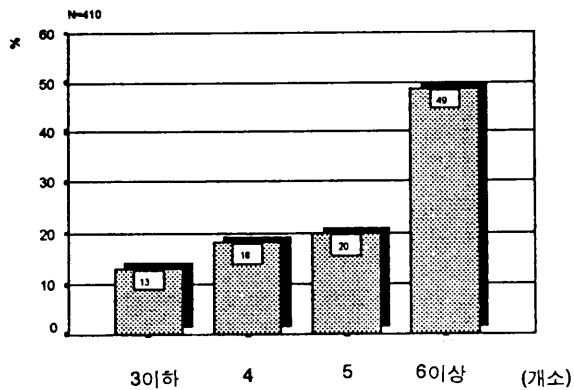
33) 열린교실로 미개조된 학급교실에서 '복도에 구성된 고정학습 코너'의 내용은 놀이·관찰·독서 순이며, 기타 선택·창의력·듣기·종이접기·컴퓨터·인성교육·취미활동 코너 등이 구성되어 있다. 조사된 기존학교 전체수의 47%에 이에 해당되고 있다.



도 V-3-9. 학습공간 재구성 빈도

3) 소그룹활동(모둠활동)자리수

도V-3-10에서 보면, 학급단위교실 안에 배치된 소그룹활동 자리 수는 3자리인 경우가 13.2%, 4자리 18.2%, 5자리 20.0%, 6자리 이상이 48.6%로서 학급당 학생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개 4-8명을 한 자리로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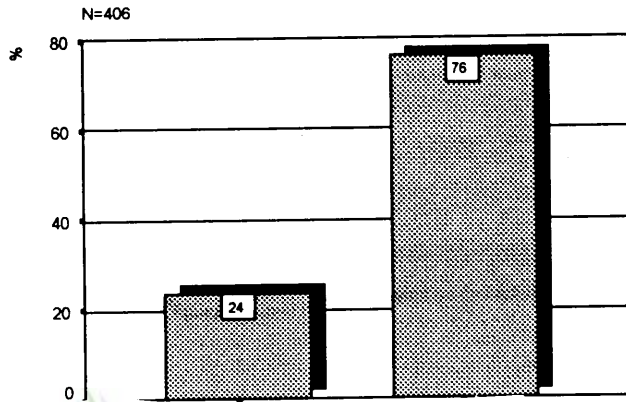


도 V-3-10. 학급당 모둠활동 자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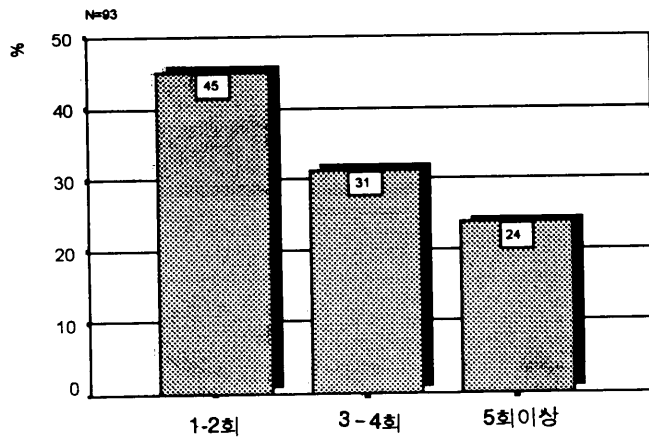
4) 열린학습공간에서의 팀티칭 현황

도V-3-11는 교사의 팀티칭에 경험에 대한 질문이다.

전체 중 24%의 교사가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이 중에서 1-2번 경험한 교사가 45%, 3-4번경험한 교사가 31%, 5번이상을 경험한 교사가 24%로 도V-3-12에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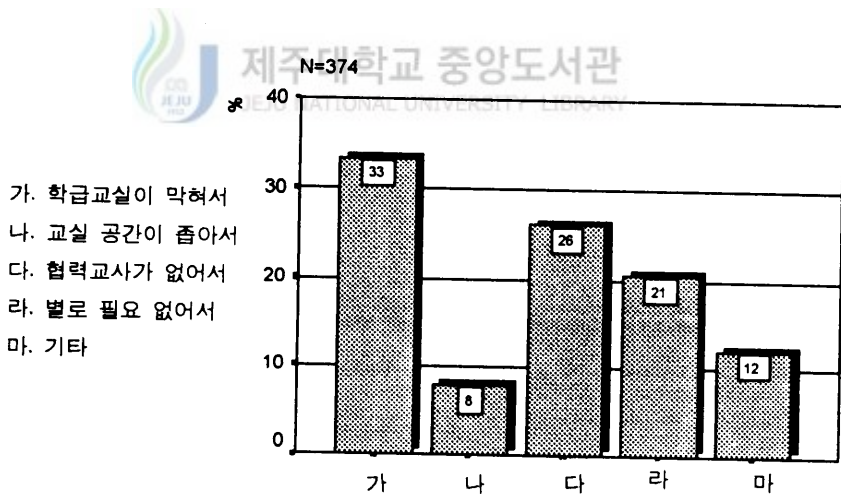
도V-3-11. 팀티칭 수업 경험



도V-3-12. 팀티칭 시도회수

이를 통하여 열린학습에서 팀티칭은 아직 보편화된 학습활동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우리나라에서 열린교육의 역사가 짧아 팀티칭에 대한 교수학습방법을 익힐 수 있는 경험을 갖지 못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V-3-1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41%가 학급교실간에 공간을 가변화 시킬 수 없는 등의 이유를 첫째로 내세우고 있으며, 26%가 보조교사의 부재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리고, 팀티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으로 인한 미경험자가 21%, 기타 응답자가 12%로 나타나고 있다.

시설적 미비로 팀티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팀티칭의 필요성은 있으나 교실간의 공간적 융통성이 결여되어 팀티칭이 제약이 되고 있는 학교에 해당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에서는 6학년 단일학급인 학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열린교육의 초기단계인 현상하에서는 시설의 미비와는 무관하게 학년간의 수준격차로 팀티칭이 어려울 것으로 추측해 볼 때, '필요 없다' 21%는 수긍이되는 수치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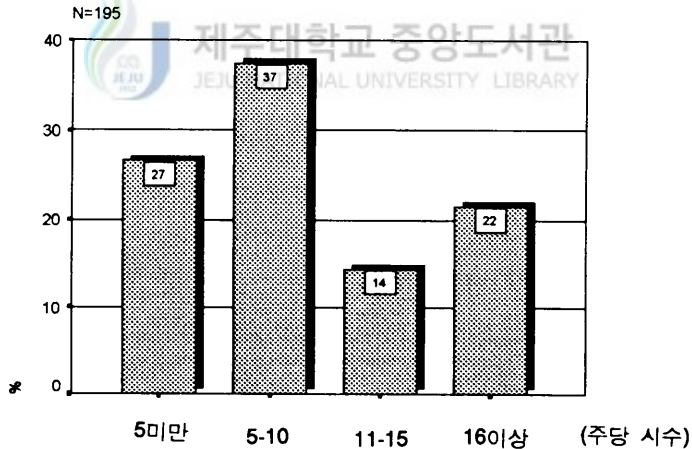
도V-3-13. 팀티칭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사. 열린 學習展開을 위한 教育器機 現況

정보화 교육자료인 멀티미디어 시설이 구비된 교실에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주간 수업 회수’는 도V-3-14에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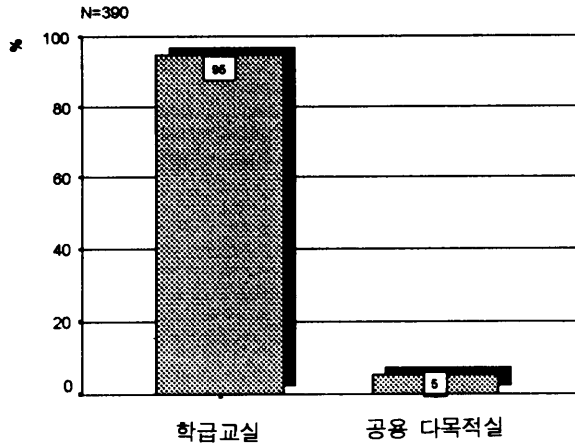
주당 5회미만이 27%, 5-10회가 37%, 11-15회가 14%, 16회 이상이 22%로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수업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자에 이르러서 첨단 교수-학습기기가 보급되면서, 학습공간에서 정보화 학습기기 등의 배치에 염두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열린교육을 위한 공간확보와 오픈화의 단계가 아직 발전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컴퓨터를 매체로하여 각기 연결된 멀티미디어 기기들은 일정한 공간에 모아 배치하므로서 멀티미디어코너화를 이루고, 교사만의 자리가 아닌 ‘학습자도 이용가능한 공용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V-3-14. 멀티미디어 자료의 수업활용도

도V-3-15에서 보면, 교사들이 바라는 ‘멀티미디어 기기의 설치장소’로서는 대다수가 학급교실을 택하고 있다. 이는 학급단위안에서 전교과를 운영해야 하는 현실에서 교수학습을 위한 교사의 편의가 비쳐진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학급단위 교실의 크기가 작을뿐 아니라 아직, 멀티미디어 기기가 전교실별로 보급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교실 공간이용에



도 V-3-15. 멀티미디어 코너의 배치장소

대한 융통성이 보여지도록, 그룹화된 교실의 중심이 되는 오픈스페이스나 다목적스페이스 등에 배치되어 공동으로 사용되므로써, 멀티미디어의 이용율을 높이고 좁은 교실공간도 다소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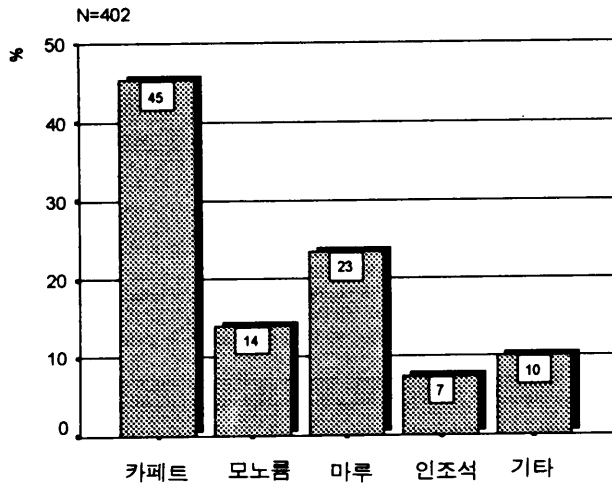


4. 열린 學習空間의 物理的 環境에 대한 評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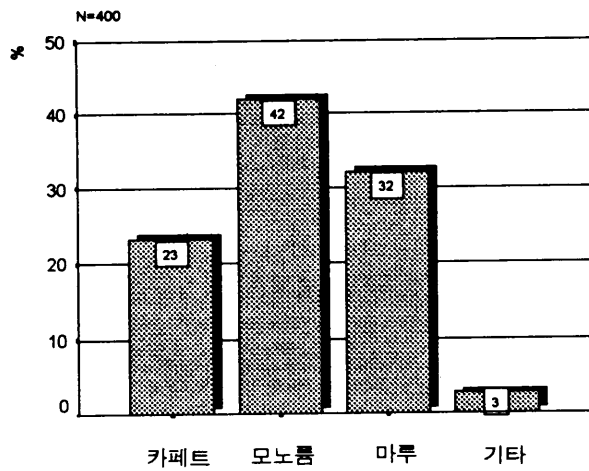
가. 교실바닥 磨勤材에 대한 評價

열린학교의 실환경에서 크게 이슈화 되어있는 카페트에 초점을 두어 교실바닥 마감재의 사용상 문제를 파악하였다. 도V-4-1은 설문조사된 학교에서의 교실바닥 마감재 현황이다.

도V-4-2는 교사들의 교실바닥 마감재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사들이 선호하는 교실바닥 마감재로는 비닐바닥재가 전체의 42.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학습활동상 보건·위생적으로 바닥을 청소하거나 관리하는데 재료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열린교실의 바닥재로서 마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카페트는 23.3%로서, 카페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무색케 하면서 오히려 마루 32.0%보다 뒤지고 있어 카페트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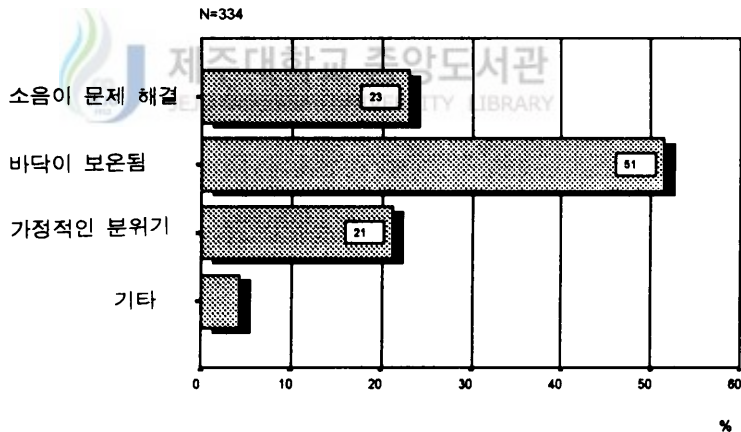

도V-4-1 교실바닥 마감재 현황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도V-4-2 교사의 교실바닥 마감재 선호도

열린교실에서 사용되는 카펫트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타일카펫트고 다른 하나는 롤 카펫트이다. 그리고 제주도 열린학교에서 카펫트가 깔리고 있는 바닥 구체(構體)의 마감은 콘크리트·마루·비닐 또는 PVC바닥재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 타일 카펫트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시공되어 있으며, 롤 카펫트는 마루 위 또는 콘크리트 위에 부착된 비닐 또는 PVC타일 위에 시공되었다.

열린학습공간의 적합한 바닥마감재를 카펫트라고 대답한 교사들에게 이에 대한 선호도를 물었다. 응답한 교사의 53%가 비닐마감재위에 깔린 롤카펫트를 선호하였다. 그 다음을 순서대로 보면 마루바닥 위에 깔아 놓은 롤카펫트(32%), 콘크리트 위에 깔린 타일 카펫트(1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롤카펫트의 경우는 대부분이 들어낼 수 있는 크기로 나뉘어서 깔려 있는데, 롤카펫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사용목적에 따라 들어내어 바닥을 청소하거나 카펫트의 소독·세탁 등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V-4-3 카펫트바닥재의 실제 사용상의 장점

도V-4-3는 열린 학습공간의 바닥을 카펫트로 사용하는 경우의 장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순서를 보면 열린교육의 다양한 수업형태 중 좌식수업(座式受業)에서 바닥이 보온된다는 점이 51%로 가장 높게 부각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보행시의 방음작용 23%, 가정적인 분위기 21%, 기타 5%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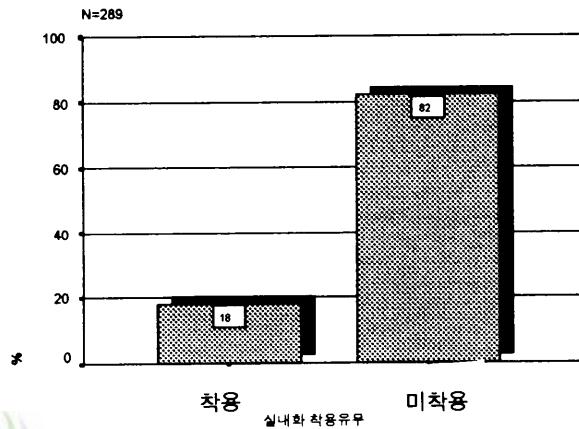
도V-4-4는 ‘교실바닥이 더럽혀질 염려가 있는 그림, 만들기, 놀이 등에 사용되는 학습활동 장소가 어디인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학급교실 내부가 65%로서 가장 많이 보여지고 있다. 그 것은 과학실 및 컴퓨터실 외에 별다른 학습공간이 없는 현실에서 볼 때 불가피한 것으로서, ‘교사의 교실 바닥재 선호도’, ‘부족된 학습공간에 대한 요구도’와 무관하지 않은 결과라 하겠다. 다목적실이나 홀을 갖고 있는 몇 몇의 학교에서는 이 곳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외의 학교에서는 복도나 복도에 연장된 오픈스페이스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바닥마감재가 카페트가 아닌 비닐바닥재나 마루바닥이어서 청소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V-4-4. 바닥 오손이 우려되는 학습활동의 장소

그리고, 별도의 다목적실이 9%로 나타나는 것은 시설환경 조성에 있어서도 열린교육의 다양한 수업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 마련에 대해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별교실 6%를 보이는 것은 과학실 등을 과목전용 교실로만 활용치 않고, 열린교육의 여러가지 학습형태에 맞도록 다목적화 시킨 것으로서, 소규모학교에서 여유교실이 없는 경우에 보여질 수 있는 바람직한 이용 방법이다. 이 처럼 바닥 더럽힘이 우려되는 학습활동 역시 교실 공간의 부족을 이유로 학급단위교실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여유교실이 부족한 실정에서 교실을 오픈화시키는 과정에는

것은 현실적으로 교실 바닥재로서 카페트가 문제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 즉, 오픈스페이스나 다목적실 등을 갖춘 학교에서는 학급단위교실에서 카페트가 갖고 있는 장점이 부각되어 다양한 열린학습 전개에 그 편의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하겠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도V-4-5. 카페트 바닥에서의 실내화 착용 현황

나. 바닥 生活方式

도IV-4-5는 카페트를 이용한 교실에서의 실내화 착용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실내화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82%, 착용하는 경우가 18%로 나타나고 있다.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카페트의 더러움을 우려한 때문이다.

이 것은 우리들의 생활습관이 좌식생활(座式生活)에 익숙해져 있을뿐 아니라 열린학습에서 보여지는 아동의 생활행태(生活行態)가 '안방생활 방식'으로 전개되어 열린수업에서 교실 바닥 이용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V. 結 論

학교시설을 담당하는 우리들은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 열린교육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외국의 열린교육 학교건축에 대한 사례를 토대로 하여, 제주지역 초등학교 열린교육 시설의 전개형태와 방향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봄으로써, 우리에게 적합한 학습공간의 건축계획에 반영될 대응방향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열린교육 시설의 현실을 알아보고,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수반하여 장래의 건축계획에 도움이 될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열린교육에 대한 인식이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제안하고, 시설환경 구성에 관해 평가하므로써 열린교육시설의 계획지침 마련에 발판을 삼고자 한다.

첫째, 행정·제도적 측면에서의 제안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선 교육관계자들로 하여금 교육시설에 대한 과거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열린교육 환경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교육홍보 정책이 필요하다.
2. 새로운 학습형태에 적합하도록 기존 학교교실의 Space Program을 재 작성하여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의거한 일관된 투자 정책이 필요하다.
3.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지침을 개발하고, 학교특성에 적합하도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결과에 대한 평가제도를 마련한다.
4. 시설 계획 시 수요자가 참여되도록하여 사용자 측면에서 시설계획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한다.
5. 학교 시설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매체의 확충이 요구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설계방향의 기준이 될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열린교육 교과운영과 관련하여 열린교육시설의 모델학교를 선정하

고 유형별로 교수학습에 대응하는 정도를 조사 연구하여 시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시설측면에서 결론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주지역 초등학교에서의 열린학습은 학급단위교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열린 학습공간의 구성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오픈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2. 제주지역의 농·어촌초등학교에서는 학급단위교실의 크기에 문제가 없으나, 도시내학교에서는 과밀된 학급의 학생수에 적합한 학급단위교실의 크기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3. 기존의 일자형 교신타입에서 복도를 오픈하여 학급단위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반드시 이 곳을 관통하는 동선에 대한 처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화장실·출입구의 위치와 학급교실과의 거리문제 해결)
4. 기존 교실의 증·개축·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학교규모에 맞게 열린교육 시설로 오픈화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기본계획이 재작성되어야 한다. (과거의 종합시설계획을 검토하여 재수립)
6. 기존 학교에서 교사 중심의 실배치는 아동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급·학년단위로 그룹화하여 재배치 되어야 한다.
7. 학습활동 코너의 설치는 저학년과 고학년의 열린 교과운영을 고려하여, 학년·복수학년 더 나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연계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실 활용도를 높이도록 계획한다.
8. 복도공간을 오픈화하는 경우에는 향후에 확보되어야 할 다목적실, 중규모·대규모 오픈스페이스 등을 증축할 수 있는 공간적 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치문제를 고려하여 공간 설정해야한다.
9. 열린교육의 초기단계인 우리의 실정에서 학급단위교실 외에 별도 다목적 공간이 없는 학교는 기존의 특별교실(과학교, 컴퓨터실 등)과 식당 등을 다목적화하고, 출입홀까지도 학습 활동장으로 이용 가능토록 구성되어야 한다.
10. 열린 학습공간 내부에 멀티미디어 기기를 집약시키고 코너화 시킴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공동으로 활용되어 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향후 발전되고 변화된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습공간 구성을 위한 시설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 열린교육의 초기단계에서 보여지는 열린 학습공간의 오픈화 과정과 유형을 분석하고, 공간구성 방식에 대해 조사 연구되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학급단위교실의 공간구성, 오픈스페이스와 학급단위교실과의 연계 문제, 그리고 오픈스페이스의 활용도 특히, 교사의 열린교육에 대한 의식구조를 통해서 본 복도공간의 학습공간화 문제, 오픈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요구되는 다목적 공간·대규모 오픈스페이스 등의 필요도, 기타 교구 및 교실 바닥재 등에 관해 조사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주지역을 표본으로 조사 연구된 본 논문의 결과는 열린교육의 시작 단계인 우리나라의 열린교육에서 교수-학습공간을 구성하는 '시설 계획상의 지침'이 되고, 교육의 발전단계에서 앞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인 열린교육의 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데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參 考 文 獻

단행본

- 한국초등교육학회.한국열린교육연구회, 1996, “열린교육의 이해”, 양서원, 서울.
- 송요의, 외 1996, “열린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서울
- 정두희 외 1998, “열린교육의 이론과 실제”, 열린교육정보자료센터,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연구원, 1997, “열린교육의 이론과 교수방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 제주도교육청, 1996, “열린교육:자기주도학습 장학자료”, 제주도교육청, 제주.
- 제주도교육청, 1998, “창의적인 열린교육활동;자기주도학습 장학자료”, 제주도교육청, 제주.
- 제주도북제주교육청, 1997, “창의적인 열린교육 우수 사례집” 제주도북제주교육청, 제주.
- 김대수, 1997, “열린학습을 위한 100문 100답” 우신출판사, 서울.
- 김진일, 1983, “건축계획론”, 보성문화사, 서울.
- 제주도교육청, 1996, “열린교육과 학교시설”, 제주도교육청, 제주.
- 한국교육개발원, 1995, “열린교육 입문”, 교육과학사,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준별교육과정 현장적용 방안과 교수-학습자료 개발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
- 한형식, 1995, “수업개혁”, 교육과학사, 서울.
- 손송남 외, 1997, “새로운 교육의 탐색”, 학지사, 서울.
- 교육부, 연도별 “표준설계도”
- 박성방, 1995, “전국열린학교 가이드북”, 한국열린교육연구회, 서울
- 교육개발원, 1998, “교육환경 개선사업 평가 연구”, 교육개발원, 서울
- 교육개발원, 1995, “국민학교 교수학습공간 재편성 모형 개발”, 교육개발원, 서울.
- 전라북도교육청, 1997, “농.어촌 현대화학교 모형연구”, 전라북도교육청,

- 서울.
- 제주도교육청, 1998, “제주교육통계연보”, 제주도교육청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1998, “교육통계편람”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 초준식, 1997, “건축계획각론”, 기문당, 서울
 - 교육부, 1997, “신교육과정에 대응하는 학교시설 모형연구”, 교육부, 서울.
 - 제주도교육청, 1998, “학교교구. 설비기준”, 제주도교육청, 제주
 - 교육부, 199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교육부, 서울.
 - 산업도서출판공사, 1995, “교육시설”, 월간 건축문화, 서울
 - 加藤幸次, 홍미리 역, 1997, “열린공간. 열린교육” 동문사.
 - 長倉康彦 편저 김종영 외 역, 1995, “학교건축의 변혁; 열린학교의 설계. 계획”, 도서출판 국제, 서울.
 - 船越徹, 건축자료연구회 역, 1992, “건축설계자료실례집: 학교건축의 새로운 실례” 도서출판 보원, 서울.
 - 長倉康彦, 김승제 역, 1989, “오픈스쿨: 그 시스템과 건물의 변혁” 산업도서, 서울
 - 데이비드 니버그, 신성보 외 공역, 1998, “열린교육의 철학”, 학지사, 서울.
 - Barth, R.S., 1972. Open Education & The American School. New York : Schocken Books.
 - Tunnell, D., 1975 "Open Education : an expression in search of a definition", In D. Nyberg(Eds.) The philosophy of open education, London & Boston : Routledge & Kegan paul Ltd.
 - Bussis, A.M. & Chittenden E.A., 1970. Analysis of an approach to open education. Priceton, N.J. : educational testing service.
 - Morrison, G.S. 1976. Early Childhood Education Today. Columbus, Ohio : Bell & Howell Co.
 - Myers, D.A. 1973. Critical Issues. In D.A.Myers & L.Myers(Eds.) Open Education Re-examined. Lexington, Mass.:Lexington Books.
 - Nyquist, E. & Hawes. 1972. G. (Ed), Open Education, New York, N.Y.: Bantam Books.

- Horwitz. R.A. 1979, Psychological Effects of the Open Classroom,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9, No.1.
- Arnold Fruednam, Zube, 1978. Envirmental Design Evaluation, Plenum, New York.
- Daniel Stokols, Irwin Altman. 1987. ; Handbook of Environmental Psychology, John Woley & Sons.
- Cirstopher Alexander. 1977. A Pattern Language, New York, Oxford.
- Herbert R. koal, 1969. The Open Classroom, A New York Review Book..
- Neville Bennett, Jenny Andrens, Philip Hegarty, Barbara Wade, 1980. Open Plan Schools, NFER Publishing Co.

학위논문

- 최병관, 1989, “Open school의 가능성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봉교, 1983, “Open education에 대응하는 국민학교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주성, 1993, “열린교육 지향의 국민학교 학습공간 요구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욱, 1993, “학교시설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경숙, 1995, “열린교육을 적용한 국민학교 학습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관영, 1998, “열린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단위학습공간에 대한 건축계획적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국곤, 1993, “초,중등학교 학교시설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훈, 1994, “영국초등학교의 열린교육에 관한 고찰;전개과정 및 주요 논쟁의 사회역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은주, 1995, “열린교육환경이 학급분위기와 아동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간행물 논문

- 김승제, “학교건축에 관한 소고”,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창간호, 1994.6
- 류호섭, “교육시설의 개혁과 개선과제”, 중앙교육연수원 교재
- 주영주, “열린학습 공간으로서의 미디어센터의 새로운 역할”, 한국시설학회지 통권 2호, 1994.2
- 이경희, “소규모학급의 교육방법 다양화를 위한 국민학교 시설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통권2호, 1994.2
- 류호섭, “국민학교 다목적 스페이스에 대한 건축계획과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통권4호, 1995.6
- 이용숙, “열린교육의 정착”, 교육월보 46호, 1997.3
- 열린교육학회, “열린교육연구”, 열린교육학회지 제6집 1호, 1998
- 전국열린교실연구응용학회, “열린교실 연구”, 전국열린교실연구응용학회지 총합본; 창간-1995.3
- 유우연, “열린교육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한국교육시설학회지 통권 8호, 1996.12
- 한은숙, “교육시설의 인간공학적 준거”, 한국교육시설학회지 통권 4호, 1995.6
- 박재윤, “미래학교 시설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통권 2호, 1994.12
- 유향산, “다양한 교육시설계획과 그 응용가능성에 관한 분석 연구(I)”, 한국교육시설학회지 통권 1호, 1994.6
- 유향산, “다양한 교육시설계획과 그 응용가능성에 관한 분석 연구(II)”, 한국교육시설학회지 통권 2호, 1994.12
- 이성은, “열린교육의 성찰과 과제”, 열린교육학회지 5집 2호, 1997
- 이용숙, “열린교육 개념의 재정립과 수업개선”, 열린교육학회지 5집 2호, 1997

- 정진곤 외, “현행열린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탐색”, 열린교육학회지 5집 2호, 1997
- 신극범, “고도정보 시대의 한국교육”, 교육월보, 1997.1
- 손병길, “교육정보화와 멀티미디어 교육”, 교육월보, 1997.3
- 이용숙, “열린 교육의 정착” 교육월보, 1997.3
- 광주광역시교육청, “열린학습의 실천과 장학”, 교육월보, 1996.12
- 조영진 외, “초등학교 단위학습공간의 규모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통권 115호, 1998.5
- 정관영 외, “열린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시설의 건축계획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 110호, 1997.12
- 정주성 외, “열린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단위학습공간의 밀도 비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 113호, 1998.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國文抄錄

근자에 와서 구시대적 환경의 전통적교육은 21세기 미래사회에 적합한 대안교육으로서의 열린교육으로 인하여 그 빛을 잃고 있다. 열린교육운동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불과 십수년이 지나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전국으로 확산되어, 제주도에서도 전도에 걸쳐 초등학교 전부가 열린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이 것은 제주지역이 전국 최초로 '교육부지정 열린교육시범운영도'로 선정됨으로서, 전도적인 열린교육 운영의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시설환경에 있어서 짧은기간 동안에 준비없이 시설적 대처를 하다보니, 선진 외국의 사례와 달리 우리의 시대상황에 부합되도록 열린학습 공간이 구성되지 못하였고, 그러다보니 미래의 변화된 열린교육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공간구성 수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초등학교를 표본으로하여, 우리나라의 열린교육을 위한 '학습공간의 오픈화 유형'과 '학습공간의 구성에 대한 수법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열린교육을 위한 학습활동에 대응할 학습공간의 형태'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우선 '제주지역 열린교실의 오픈화된 유형'을 찾기 위해 제주지역 열린학교의 설계도면을 분석하고, 이러한 공간의 이용에 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간 이용에 관한 행태를 인자별로 비교'하고, 그 유형에서 '학습활용상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초등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열린학습공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조사는 '교사의 열린교육에 대한 인식', '학교 소재지', '학교규모', '학생수' 등이 고려되었는데, 조사내용을 가지고 오픈화된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므로써, '우리실정에 적합한 열린학습공간의 전형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자 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시기적으로 열린교육의 초기단계인 우리나라에서, 교육환경에 대한 교사의 인식구조가 열린환경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교사로 하여금 어떠한 학습공간을 구성케 하는가를 알아 보았다. 그리고 학급단위교실의 공간구성 내용과 오픈화된 복도의 학습활용상의 문제점, 보다 확장된 오픈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

영역, 그리고 향후 열린교육 교수학습방법의 발전시기에 전개 가능할 수 있을 또 다른 형태의 학습활동에 대한 공간적 필요도 등을 조사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열린학습 공간구성을 위한 설계계획상의 지침을 마련하였다.



부 록

열린교육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는 열린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모범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린교육을 위한 학교시설 확충은 「신축학교의 열린교육 시설」과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학교를 개조한 열린교육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열린교육전개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과거의 표준설계도에 의해 건축되어진 학교의 획일식 학습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기존학교를 열린학습 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의 모색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현재 제주지역의 초등교육현장에서 열린교육 시설환경과 관련하여 열린교육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열린교육 시설규준을 제시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열린교육을 위해 하루하루 바쁜 일정 속에서 보내고 계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부담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선생님들의 정성스런 답변들이 우리 제주지역 초등학교 열린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절대로 외부에 유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모든 자료가 통계수치로 처리되므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염려는 절대 없습니다.

-조사대상 및 회수방법-

- 조사대상 : 학급을 맡아 열린교육을 운영하시는 선생님
- 설문지 회수 방법 : 교감선생님 또는 서무주임 선생님께 전해주시시오
- 조사담당자 및 문의처 : 양상철 (T 756-3164)

※ 본 조사는 기존학교의 학습공간을 열린학습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개조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 먼저 선생님에 관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1-1 선생님의 성별과 연령은 ?

- 1) 남----()세 2) 여----()세

1-2 본인의 교직경력은?

- 1) 5년 이하 2) 6년~12년 3) 13년~19년 4) 20년 이상

1-3 현재 재직하시는 학교의 소재지는?

- 1) 시지역 2) 읍지역 3) 면지역

1-4 현재 답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학생수는?----- ()명

1-5 현재 담당하시는 학년은?

-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4) 4학년 5) 5학년 6) 6학년

1-6 열린수업(교육활동) 운영 경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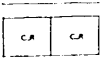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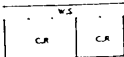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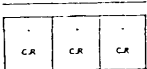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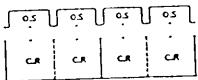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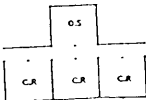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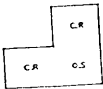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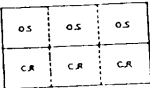
- 1) 1년 이하 2) 2년~3년 3) 4년~5년 4) 6년 이상

1-7 우리나라 열린교육의 미래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 1)매우 활성화 될 것이다. 2)활성화 되기 어려울 것이다. 3)잘 모르겠다.

② 열린교실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2-1 현재 담당하시는 학급의 열린교실은 다음의 어떤 유형입니까?

- 1)  기존교실형
교실과 복도 사이에 벽이 있다.
- 2)  교실에서 복도를 열어 놓았다.
- 3)  교실에서 복도를 열어 놓았으며 교실 단위공간 크기가 보통 교실보다 크다.
- 4)  복도를 열어 교실로 확장하고, 밖으로 복도를 신설하였다.
- 5)  복도가 열리고 밖으로 학급별 오픈스페이스가 선룸식으로 연장 증축되었다.
- 6)  복도가 열리고 가까이에 다목적 공간이 구성되었다
- 7)  복도가 없으며,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두 개의 교실공간이 'L자'로 만나고 있다.
- 8)  학급 교실에 면하여 큰 면적의 오픈스페이스를 갖고 있으며, 전체가 하나로 트일수 있는 공간구조이다.

- 2-2 기존교실을 개조하여 열린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느낌(필요성)은?
 1) 매우 필요하다. 2) 조금 필요하다. 3) 그저 그렇다. 4) 거의 불필요하다.
 5) 전혀 불필요하다.
- 2-3 학급단위 교실안에서 수업하시기에 공간적으로 좁기 때문에 불편한 학습활동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 주십시오.
 ()
- 2-4 현재 선생님이 맡고있는 학급교실의 크기는 학생수에 비해 어떻습니까?
 1) 매우 크다. 2) 조금 크다. 3) 보통이다. 4) 조금 작다. 5) 매우 작다.
- 2-5 열린교육환경에 우선적으로 개선될 사항은?
 1) 다양한 교수 자료 확보
 2) 열린공간 구성 등 물리적 시설 확충
 3) 학급당 학생수의 적정화
- 2-6 기존교실을 개조하여 터놓은 복도공간에 대해 선생님의 활용상 느낌은?
 1) 교실에서 연장된 학습공간이다. 2) 통로기능이다.
- 2-7 열린복도공간이 열린수업에 어느 정도 활용됩니까?
 1) 매우 활용된다. 2) 조금 활용된다. 3) 보통이다. 4) 거의 활용 안된다.
 5) 전혀 활용 안된다.
- 2-8 열린복도공간을 학습공간으로 이용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1) 학생들이 이동하는 통로라서
 2) 복도바닥재가 교실바닥재와 분리되어 있어서
 3) 학습공간으로 이용하기에 너무 좁아서
 4) 학생수가 작아서 교실공간만으로 충분하여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으므로
 5)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음
- 2-9 담당하는 학급교실에서 화장실과의 거리가 멀어서 학습활동에 지장을 줍니까?
 1) 매우 그렇다. 2) 조금 그렇다. 3) 보통이다. 4) 거의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 2-10 담당하는 학급교실과 출입구와의 거리가 멀어서 학습활동에 지장을 줍니까?
 1) 매우 그렇다. 2) 조금 그렇다. 3) 보통이다. 4) 거의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 2-11 교과운영상 단위학급교실 외의 별도의 다목적 공간이 필요합니까?
 1) 매우 그렇다. 2) 조금 그렇다. 3) 보통이다. 4) 거의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 2-12 학급교실, 특별교실(과학실, 컴퓨터실)외의 열린교육을 위한 별도의 학습공간이 필요하다
 면 무엇입니까? 전개될 수 있는 학습내용을 적어주십시오.
 ()

- 2-13 열린교육이 학습활동상 교실과 교실간에 융통성을 주기위한 이동 간막이 시설이 필요 합니까?
 1) 매우그렇다. 2) 조금그렇다. 3) 보통이다. 4) 거의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 2-14 각 학급교실에서의 학습자료 배치공간은 충분합니까?
 1) 매우그렇다. 2) 조금그렇다. 3) 보통이다. 4) 거의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 2-15 선생님은 학습자료 준비를 어디에서 합니까?
 1) 학급교실 2) 교사연구실 3) 교무실 4) 회의실 5) 기타

3] 열린 학습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 3-1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자주 이용되는 학습활동의 형태는?
 1) 전체 활동수업 2) 개별수업 3) 소집단수업 4) 소집단수업을 기초로 한 개별수업
- 3-2 열린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는 고정 학습코너가 있어야 합니까?
 1) 꼭 있어야 한다. 2) 있으면 더욱 좋다. 3) 없어도 된다. 4) 있을 필요가 없다.
- 3-3 열린 학급교실 안에서 배치된 소그룹 모듬활동의 자리수는?
 1) 3개소 2) 4개소 3) 5개소 4) 6개소 이상
- 3-4 선생님의 학급교실안에 배치된 고정 학습코너의 종류는?
 -----> ()
- 3-5 열린 교실로 개조되지 않은 기존 교실형인 경우, 기존 복도공간에 배치된 고정 학습코너는?
 -----> ()
- 3-6 선생님의 학급교실 안에 고정 학습코너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1) 상설로 구성된다. 2) 1년에 2~3번정도 재구성된다.
 3) 수업목표에 따라 새롭게 수시로 재구성된다. 4) 기타()
- 3-7 열린 교실에 **물공간(생크대)이 설치된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그 사용빈도를 순서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1)식수() 2)양치질() 3)손씻기() 4)학습활동용() 5)청소()
- 3-8 선생님의 학급에서 교실공간이 비좁아 설치되지 못한 고정 학습코너가 있다면,
필요한 순서대로 3가지 이상을 적어주십시오.
 ()

3-9 선생님은 교사들간의 팀티칭을 시도해 보셨습니까?

- 1) ①예 ②아니오
- 2) 상기①항목을 답한 경우, 지금까지 몇 번 정도 시도해 보셨습니까?
①1~2번 ②3~4번 ③5번 이상

3-10 일반적으로 팀티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는?

- 1) 학급교실간에 가변화 시킬 수 없는 등 시설이 미비 되었기 때문
- 2) 공간이 좁다.
- 3) 협력교사가 없어서
- 4) 별로 필요없다.
- 5) 기 타

4 학습기기 와 자료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4-1 학급교실에 비치된 교수학습기기를 있는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 1)컴퓨터 () 2)TV () 3)녹음기 () 4)VTR() 5)OHP()
- 6)실물화상기() 7)프로젝터() 8)디지털피아노() 9)구형오르간()
- 10)피아노 () 11)(더 있다면? 구체적으로:)

4-2 학급교실에 멀티미디어자료를 갖추고 있다면 주간 몇 회 정도 사용하십니까?

- 1) 5번 이내 2) 5~10번 3) 11~15번 4) 16번 이상

4-3 열린학습활동에 멀티미디어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배치되어야 합니까?

- 1) 학급교실마다 2) 2~3개 학급이 공유하는 다목적실에

5 실내외의 학습환경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5-1 옆 교실의 수업 소음이 발생되어 수업에 방해됩니까?

- 1) 매우그렇다. 2) 조금그렇다. 3) 보통이다. 4) 거의그렇지않다. 5) 전혀그렇지않다.

5-2 음악, 율동 등 소음이 발생되어 다른 교실에 방해되는 학습활동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 1) 학급교실안 2) 음악실 3) 다목적실 4) 특별교실(과학실,컴퓨터실)
- 5) 식당 6) 기타()

5-3 율동 등 움직임이 많은 학습활동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 1) 학급교실안 2) 열린복도 3) 오픈스페이스 4) 다목적실 5) 식당
- 6) 기타()

5-4 대집단 학습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큰 교실(식당, 체육관 제외)이 귀 교에 있다면 선생님께 서는 어떠한 학습활동을 전개하시겠습니까?

-----> (구체적으로:)

5-5 열린학습을 위한 옥외학습활동은 주로 어떤 교과와 어떠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구체적으로:)

5-6 귀 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있는 대로 적어주십시오.
-----> (구체적으로:)

5-7 선생님께서 말으신 학습의 교실의 바닥재는 무엇입니까?
1) 카펫 2) 모노룸 3) 마루 4) 인조석 물갈기 5) 기타

5-8 열린학습을 위한 교실에서 가장 적합한 바닥재는 무엇입니까?
1) ①카펫 ②모노룸 바닥 ③ 마루 ④ 기타
2) 상기①항목을 선택하신 경우, 어떠한 카펫바닥이 적합합니까?
① 콘크리트 위에 붙인 타일 카펫 바닥
② 기존 마루위에 깔아 놓은 카펫 바닥
③ 모노룸 위에 깔아 놓은 물카펫 바닥

5-9 교실바닥 카펫의 실제 사용상 가장 큰 장점
1) 소음을 예방하여 출입이나 움직임 있는 학습활동에 유리하다.
2) 바닥이 보온되고 앉아서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가정에서 느낄수 있는 정도의 포근한 분위기를 가져다 준다.
4) 기 타 ()

5-10 바닥이 더럽혀지는 그림, 만들기, 놀이 등의 학습활동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1) 교실내부 2) 복도 3) 오픈스페이스 4) 별도의 다목적실
5) 특별교실(과학실,컴퓨터실 등) 6) 식당 7) 기타

5-11 학생들이 카펫교실에서 실내화를 착용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5-12 열린교육 시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5-13 기타의견(열린교육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설문조사는 끝났습니다.
설문조사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